수시연구 2024-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Increase Investment in the Marine Fund of Funds

한기원 · 좌미라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시연구 2024-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to Increase Investment in the Marine Fund of Funds

한기원 · 좌미라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한기원, 좌미라**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기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좌미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연구기간	2024. 5. 13. ~ 2024. 11. 12.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한기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내부연구진	좌미라 제2장 제1절 일부, 제3장

산 · 학 · 연 · 정 연구자문위원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안요한 동명대학교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최수경 해양수산부 사무관

※ 순서는 산 · 학 · 연 · 정 순임

발간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이는 모든 국민들이 고통과 역경을 감수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해양수산업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운업, 수산업, 항만산업, 조선업 등이 국가 경제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왔다.

이제 우리 해양수산업은 새롭게 변모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기존의 해양산업에 혁신이 필요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해양수산 분야 산업들이 성장하여 우리 경제를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혁신의 방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한 과학기술적 도약,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적용을 통한 스마트화, 타 분야와의 융 · 복합 등을 들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해양수산 분야 산업들을 정부는 해양신산업이라 부르며,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대기업 등 기존의 기업들보다 새롭게 등장한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주로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업 분야의 혁신과 성장도 이들 벤처기업들이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에 머물고 있어서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중소 · 벤처기업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 신규 정책펀드 조성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관리 ·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에 해양계정(이하 '해양모태펀드')을 신설하였다. 이 해양모태펀드는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운 여건 하에 있던 해양신산업 분야의 중소 · 벤처기업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으며, 또한 해양산업 분야의 투자생태계 형성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정부 출자 규모인 1천억 원을 6년 만인 2024년에 모두 출자 완료하게 되었고, 아직 기존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기업들에 대한 향후의 투자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지금까지의 해양모태펀드 출자 · 운용 현황에 대

한 점검과 향후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시기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양모태펀드가 출범한지 만 5년이 지났으나 아직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다. 그동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본 연구가 수행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투자사업의 성격상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본격적인 조사 ·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한 우리원의 한기원 연구위원과 좌미라 전문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며, 아울러 연구에 도움을 주신 외부 전문가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벤처시장연구원 배승욱 대표, 동명대학교 안요한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연구관, 해양수산부 최수경 사무관 등 산 · 학 · 연 · 정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움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5년 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목차

정책제안 _i

요약 _iii

Executive Summary _xi

01 서론 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2.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검토 6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02 해양모태펀드 운용 현황 _15

제1절 정책펀드의 개념과 한국모태펀드 현황 15
1. 정책펀드와 모태펀드의 개념 15
2. 한국모태펀드 및 국내 정책펀드 현황 19
3. 한국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35

제2절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의 조성 및 운용 실태 38
1. 해양모태펀드 도입 및 확대 38
2. 해양모태펀드 운용 실적 40

제3절 시사점 42

03 해양산업의 분포 및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_45

제1절 해양산업의 범위와 분포 현황 45
1. 해양산업의 범위 45
2. 해양산업의 분포 현황 52

제2절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68
1. 자료 개요 69
2.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69

04 해양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_91

제1절 해양모태펀드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 91
1. 해양모태펀드 운용상의 주요 현안 91
2.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개선 방향 93

제2절 해양모태펀드 계정 신설 추진 방안 95
1. 연안지역 투자 관련 정부 정책 검토 96
2. 한국모태펀드 신규 계정 제안: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 102

제3절 해양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107
1.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107
2. 해양모태펀드 성과분석 108
3. 해양분야 전문 투자자 양성 108
4. 자펀드 분야 세분화 109
5. 신규 정책펀드 신설 111

05 결론 및 정책제언 _113

제1절 요약 및 결론 113

제2절 정책제언 114

참고문헌 _117

표 목차

〈표 1-1〉 국외 정부 벤처캐피탈 관련 선행연구 ····· 6
〈표 1-2〉 한국모태펀드 관련 국내 선행연구 ····· 10
〈표 1-3〉 한국모태펀드 외 국내 정책펀드 관련 연구 ····· 12
〈표 1-4〉 해양산업 관련 선행연구 ····· 13
〈표 1-5〉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 차별성 ····· 14
〈표 2-1〉 벤처캐피탈과 일반 금융기관 비교 ····· 16
〈표 2-2〉 벤처캐피탈의 유형 및 특징 ····· 16
〈표 2-3〉 정부 부처별 정책펀드 예산 집행 현황(2020년) ····· 18
〈표 2-4〉 한국모태펀드 주 출자 분야 ····· 20
〈표 2-5〉 한국모태펀드 정부 부처별-연도별 신규 투자 실적(2012~2022) ····· 21
〈표 2-6〉 한국모태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실적(2004~2022) ····· 23
〈표 2-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투자 대상 ····· 27
〈표 2-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중 수산 관련 펀드 ····· 29
〈표 2-9〉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분야 ····· 33
〈표 2-10〉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2024년 선정 결과 ····· 34
〈표 2-11〉 해양모태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 39
〈표 2-12〉 해양모태펀드 연도별 출자사업 계획 ····· 40
〈표 2-13〉 해양모태펀드 출자펀드 현황 ····· 40
〈표 3-1〉 해양수산업의 정의 및 범위 ····· 46
〈표 3-2〉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 47
〈표 3-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범위와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체계의 연계 ····· 49
〈표 3-4〉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활용한 해양산업의 범위 설정 ····· 50
〈표 3-5〉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해양수산 신산업의 범위 ····· 52
〈표 3-6〉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따른 '해양' 및 '수산' 사업체 현황 ·· 53
〈표 3-7〉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수, 매출액 및 사업체당 매출액 ····· 55
〈표 3-8〉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종사자당 매출액 ·· 57
〈표 3-9〉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광역별 사업체 수, 매출액 및 사업체당 매출액 ·· 60
〈표 3-10〉 2022년 기준 해양 사업체와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당 매출액 및 종사자당 매출액 비교 ····· 62

〈표 3-11〉 2022년 기준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 ····· 64
〈표 3-12〉 지역별 및 업종별 해양 사업체 수 ····· 65
〈표 3-13〉 지역별 및 업종별 매출액 ····· 67
〈표 3-14〉 자료 구축 개요 ····· 69
〈표 3-15〉 2020~2024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 70
〈표 3-16〉 2020~2024년 해양모태펀드 업력별 투자 현황 ····· 72
〈표 3-17〉 업력별 연도별 투자 유치 금액 ····· 73
〈표 3-18〉 해양모태펀드와 벤처캐피털 투자의 업력별 및 연도별 투자 금액 비교 ····· 74
〈표 3-19〉 업력별 및 연도별 기업 수 ····· 75
〈표 3-20〉 해양모태펀드와 벤처캐피털투자 피투자 기업 수 비교 ····· 76
〈표 3-21〉 업력별 건당 투자금액 ····· 77
〈표 3-22〉 건당 투자금액 분포 ····· 78
〈표 3-23〉 지역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 ····· 79
〈표 3-24〉 지역별 해양 사업체 분포 및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 81
〈표 3-25〉 2020~2024년 업종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 82
〈표 3-26〉 2020~2024년 업종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 ····· 84
〈표 3-27〉 2020~2024년 지역별 및 업종별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금액 현황 ····· 85
〈표 3-28〉 2020~2024년 투자 유치 상위 기업별 투자 유치 현황 ····· 86
〈표 3-29〉 2020~2024년 해양신산업 분야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 88
〈표 3-30〉 2020~2024년 지역별 해양신산업 분야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 89
〈표 4-1〉 한국모태펀드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 계정 신설(안) 개요 ····· 103
〈표 4-2〉 한국모태펀드 지방계정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 105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 4
〈그림 2-1〉 한국모태펀드 정부 부처별-연도별 신규 투자 실적(2012~2022) ····· 22
〈그림 2-2〉 한국모태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실적(2004~2022) ····· 24
〈그림 2-3〉 한국모태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실적(2004~2022) ····· 25
〈그림 2-4〉 한국모태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비율(2004~2022) ····· 25
〈그림 2-5〉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 ····· 30
〈그림 2-6〉 미디어 · 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24.3.13.) ····· 31
〈그림 2-7〉 K-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운용 체계 ····· 32
〈그림 2-8〉 한국모태펀드 운용구조 ····· 36
〈그림 2-9〉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운용구조 ····· 37
〈그림 2-10〉 해양모태펀드 운용구조 ····· 38
〈그림 3-1〉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수, 매출액 및 사업체당 매출액 ····· 56
〈그림 3-2〉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종사자당 매출액 ····· 58
〈그림 3-3〉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수(左) 및 매출액(右) 현황 ····· 58
〈그림 3-4〉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종사자 수 현황 ····· 59
〈그림 3-5〉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당 매출액(左) 및 종사자당 매출액(右) 현황 ····· 59
〈그림 3-6〉 2022년 기준 업종별 사업체 수, 매출액 및 사업체당 매출액 ····· 63
〈그림 3-7〉 2022년 기준 업종별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종사자당 매출액 ····· 64
〈그림 3-8〉 지역별 및 업종별 해양 사업체 수 ····· 66
〈그림 3-9〉 지역별 및 업종별 매출액 ····· 68
〈그림 3-10〉 해양모태펀드 연도별 투자금액 및 투자 기업 수 ····· 71
〈그림 3-11〉 해양모태펀드 업력별 총 투자 유치 금액(左) 및 기업별 평균 투자 유치 금액(右) ····· 72
〈그림 3-12〉 업력별 연도별 투자 유치 금액 ····· 73
〈그림 3-13〉 업력별 및 연도별 기업 수 ····· 75
〈그림 3-14〉 건당 투자금액 분포 ····· 78
〈그림 3-15〉 2020~2024년 업종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 83
〈그림 3-16〉 2020~2024년 업종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 ····· 84

〈그림 3-17〉 2020~2024년 지역별 및 업종별 해양 벤처투자 현황 ····· 86
〈그림 3-18〉 2020~2024년 해양신산업 분야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 88
〈그림 3-19〉 2020~2024년 지역별 해양신산업 분야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 90
〈그림 4-1〉「어촌 · 연안 활력 제고방안」 개요 ····· 96
〈그림 4-2〉「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개요 ····· 98
〈그림 4-3〉「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개요 ····· 100
〈그림 4-4〉「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의 권역별 특성화 ····· 101

정책제안

▌분석 내용 및 방법

1.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해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모태펀드 출자 확대방안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이를 위해 국내 정책펀드 운용 현황과 해양모태펀드 운용 실태를 분석함
3. 국내 해양수산업 현황과 해양수산분야 벤처기업의 현황을 분석함
4. 이를 바탕으로 해양모태펀드의 운용 현안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해양모태펀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1. 해양모태펀드 계정 신설(바다생활권 특화 펀드(안) 제시)
2.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O-Startup) 활용 확대
3. 해양모태펀드 성과분석 수행
4. 해양분야 전문 투자자 양성을 통한 민간투자 생태계 활성화
5. 해양모태펀드 자펀드 세분화(지방 소재 중소·벤처기업 지원, 재창업기업 지원, 해양분야 엑셀러레이터 지원,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6. 한국모태펀드 외 신규 정책펀드 신설

요 약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 좌미라

1. 배경 및 목적

- 해양수산부는 2019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벤처투자모태조합(한국모태펀드)의 해양계정인 해양모태펀드를 신설함
  - 해양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간접투자인 모태펀드 방식을 선택함
- 해양모태펀드의 운용기간은 2035년까지로, 해수부가 목표했던 펀드 규모가 이미 달성되었고 이에 해양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해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는 방안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정책펀드의 개념과 한국모태펀드 현황

1) 정책펀드의 개념

-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정의할 수 있음[1)]
- 모태펀드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와 동의어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함[2)]
  - 민간의 투자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함
  - 따라서 정책펀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책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민간 투자 생태계의 성장임
  - 과도한 규모의 정책펀드 운용은 시장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오히려 민간 투자시장을 구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함

2) 한국모태펀드 현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펀드)는 2005년 7월 15일에 결성되었고 운용기간은 30년(2005~2035)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1) 남재우(2022), p.i.
2) 한국벤처투자(2022), p.5.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총 13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출자함

-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규모는 총 8조 8,968억 원에 이르며(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진계정, 청년계정, 혁신모험계정 등 총 19개 계정이 주 출자 분야로 설정됨[3)]

▪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의 부처별 신규 투자 실적(2012년~2022년)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186,4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9,483억 원, 특허청 12,567억 원의 순**

- 2019년부터 모태펀드 출자를 시작한 해양수산부의 실적은 390억 원으로 낮은 수준임

▪ **한국모태펀드의 지역별 신규 투자 실적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적으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높은 수도권 집중도가 눈에 띄는데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의 전체 신규 투자금액 비율이 70.72%였고 그 중 서울이 47.7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함
- 반면 부산(1.95%), 경남(1.90%), 전남(0.51%) 등 해양수산 분야 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투자 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3. 국내 정책펀드 사례

1) 수산모태펀드

▪ **수산모태펀드는 해양수산부가 출자하는 정책펀드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운용함**

3)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6.)

- 2010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됨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은 분리되어 운용됨

▪ **수산모태펀드는 2023년까지 정부 출자금이 1,735억 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민간 출자 규모는 790억 원으로 확인됨**[4)]

-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수산업 및 관련 분야 출자펀드는 19개가 결성되었고 총 2,904억 원 규모로 파악됨[5)]
- 투자분야별로 보면 수산업 펀드가 13개로 총 2,070억 원, 수산벤처창업 펀드가 4개로 총 501억 원, 스마트양식산업혁신 펀드 1개 133억 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펀드 1개 200억 원임

▪ **농금원은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운영하고 있으며 ASSIST는 농금원 홈페이지에 연동됨**[6)]

- 이 플랫폼은 기업(경영체), 투자자, 연구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함
-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업 정보를 올림으로써 투자 제안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투자자들에게는 잘 알기 힘든 농림수산식품 분야 경영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대상 선정을 지원함

2) 케이-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

▪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신규로 '케이(K)-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함**

4) 해양수산부 업무협의 자료(2024.5.29.)
5) 농금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1.).
6)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검색일: 2024.9.12.)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2백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7)]
- IP 기반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가 위탁운용사로 선정됨

▪ **K-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는 투자 대상이 중소 ·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지 않고 국내 제작사 등 미디어 · 콘텐츠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함[8)]**

4. 해양모태펀드 운용 현황

▪ **2019년에 신설된 해양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며 2019년부터 2035년까지로 운용기간을 설정함[9)]**

- 해수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해양모태펀드에 총 1,000억 원을 출자하였고, 민간 투자 522억 원을 더해 총 1,522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
- 자펀드의 존속기간은 최대 8년 이내로, 투자금 회수와 자펀드 청산이 이루어진 후에 회수된 금액은 신규 자펀드 조성에 재출자되는 구조로 추진함
-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대상은 중소 · 벤처기업이며 주목적 투자대상 분야는 해양신산업과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전통산업 혁신임(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은 2023년까지 60%, 2024년에는 65%로 설정)

▪ **해양모태펀드 자펀드는 2019년 2개, 2020년 2개, 2021년 1개, 2022년 1개, 2023년 1개, 2024년 2개로 총 9개의 출자펀드가 결성됨[10)]**

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 p.3.
8) 미디어 ·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2024), p.8.
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1.30.)

- 자펀드 결성금액은 7,000~30,000백만 원으로 2024년까지 총 152,200백만 원의 펀드가 조성됨
-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목적 분야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66회, 약 613.5억 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이 기간 총 44개 기업이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13.9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됨

5. 해양산업 분포 및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양 사업체는 총 25,916개사**

- 부산 31.0%(8,032개사), 경남 17.7%(4,594개사), 서울 10.3%(2,663개사), 전남 9.6%(2,486개사), 울산 5.8%(1,502개사) 순으로 분포
- 남해안에 접해 있는 광역지자체(전남, 경남, 부산, 울산)의 사업체 수 비중을 합하면 64.1%로, 전체 해양 사업체의 약 2/3가 남해안권에 집중
- 매출액 기준으로 해양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165.7조 원 중 서울이 69.5조 원으로 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확대하면 47.0%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 중 해양 분야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해운항만업이 31.1%(8,070개사),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30.6%(7,932개사), 해양 관련 서비스업이 25.7%(6,670개사) 차지

▪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양모태펀드는 44개 기업에 총 613.5억 원을 투자**

10)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5.); DIVA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검색일: 2024.11.01.)

- 같은 기간에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은 13.9억 원
- 지역별로는 서울에 30.6%(총 188억 원), 부산(15.1%), 대전(11.2%), 전남(6.7%) 순이며, 수도권의 투자 비율은 총 50.7%(311억 원)
- 업종별로 해양 기자재 제조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41.9%(256.9억 원), 이어서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 16.4%, 해양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분야 13.5% 순
- 해양신산업 분야별 투자금액 규모는 전통산업 혁신 분야가 31.6%(194억 원), 친환경·첨단선박(30.1%, 184.5억 원), 기타(22.7%, 139억 원) 순

6. 해양모태펀드 주요 현안 및 개선 방안

1) 주요 현안

- **해양분야 산업 여건과 중소·벤처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
- 해양모태펀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현재 해양모태펀드 투자 규모는 타 분야 계정에 비해 부족하며, 정부 출자금 조성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추가적인 출자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일차적으로 한국모태펀드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 출자 확대가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적인 투자 불균형과 공백이 해양모태펀드 투자 활성화와 해양산업 육성에 심각한 문제임**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중 다수가 남해권을 중심으로 지방 연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밴처캐피탈 등 주요 투자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 지역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양에 대해 잘 알고 해양분야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2) 개선 방안

- **해양모태펀드 계정 신설**
  -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안)
-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O-Startup) 활용 확대**
  - O-Startup 시스템 개선 및 홍보 강화
- **해양모태펀드 성과분석 수행**
- **해양분야 전문 투자자 양성**
- **자펀드 분야 세분화**
  - 지방 소재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
  - 재창업 기업
  - 해양분야 엑셀러레이터
  -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 **신규 정책펀드 신설**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Measures to Increase Investment in the Marine Fund of Funds

Ki Won Han · Mira Choa

1. Background and Purpose

- In 2019,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established the Marine Fund of Funds (marine account of the Korean Fund of Funds) under Article 70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 The Marine Fund of Funds adopts an indirect investment model to improve private investment conditions in the marine industry, focusing on emerging marine industries.
- Scheduled to operate until 2035, the fund has successfully achieved its initial target amount. And additional investments are now required.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trategies for expanding contributions to the Marine Fund of Funds and vitalizing investment to venture businesses in order to sustain the growth of the domestic marine industry.

2. Concept of Policy Fu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Fund of Funds

1) Concept of Policy Funds

- Policy funds are defined as "indirect government-backed funds designed to supply capital to areas of national policy importance where market failures are anticipated".[11)]
- The fund of funds (FoF) refers to "a fund that does not directly invest in companies but contributes to venture funds established by private venture capital firms".[12)]

- Policy funds serve as a catalyst for private sector investment for industry development in situations where private investment conditions are insufficient.
- The key goals of policy funds are to achieve policy goals while fostering the growth of private investment ecosystems.
- Excessive reliance on policy funds may lead to increased dependency on government support, and cause adverse side effects of potentially undermining the private investment market.

11) Nam (2022), p.i.
12)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2022), p.5.

2)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Fund of Funds

- The Korean Fund of Funds (Small and Medium Business Fund of Funds) was established on July 15, 2005,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nd is scheduled to operate for 30 years (2005–2035).
  - Contributions are sourced from 13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As of December 31, 2023, the fund, managed by Korea Venture Investment, has accumulated KRW 8.9 trillion across 19 major accounts, such as the SME account, youth account, and innovation venture account.[13)]
- From 2012 to 2022,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corded the largest contribution to the Korean Fund of Funds at KRW 18.6 trillion, follow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RW 2.95 trillion)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RW 1.25 trillion).
  -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started contributing in 2019, reported the lowest contribution at KRW 39 billion.
- Regional investment data reveal a significant imbalance in new investments for SMEs and venture companies.

13)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website (Accessed: 2024. 9. 6.)

- Investment is highly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with 70.72% of the total going to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of which Seoul accounted for 47.73%.
- In contrast, regions with significant marine industry activity—such as Busan (1.95%), Gyeongnam (1.90%), and Jeonnam (0.51%)—remain underfunded, struggling to attract investment.

3. Domestic Policy Fund Cases

1) Fisheries Fund of Funds

- The Fisheries Fund of Funds is a policy fund operated by the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APIFS) with contributions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 It was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o-Fisheries Investment Funds in 2010.
- While included in the Agro-Fisheries Food Fund of Funds, its budget is managed separately.
- As of 2023, government contributions to the Fisheries Fund of Funds totaled KRW 173.5 billion, with private sector contributions amounting to KRW 79 billion by 2021.[14)]
- A total of 19 investment funds in the fisheries and related sectors were established from 2010 to 2023, with an overall size of 290.4 billion KRW.[15)]

14) MOF consultation materials (2024.5.29.)

- In terms of investment sectors, there were 13 fisheries funds totaling 207 billion KRW, 4 fisheries venture startup funds amounting to 50.1 billion KRW, 1 smart aquaculture industry innovation fund at 13.3 billion KRW, and 1 agricultural, forestry, fisheries, and food fund valued at 20 billion KRW.

▪ APIFS operates an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vestment information platform, ASSIST, which is integrated into its website.[16)]

- The platform serves a diverse user groups, including businesses, investors, and researchers.
- The platform enables businesses to access support programs, showcase business information, and promote investment opportunities to potential investors.
- For investors, it provides information on agro-fisheries enterprises, supporting the selection of investment targets that are otherwise difficult to identify.

2) K-Content and Media Strategic Fund

▪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newly launched "K-Content and Media Strategic Fund" in 2024.

- Over a five-year period (2024–2028), the fund aims to accumulate KRW 1.02 trillion.[17)]

15) APIFS website (Accessed: 2024. 9. 11.).
16) Agricultural and Fisheries Investment Information Platform (Accessed: 2024. 9. 12.)

- This fund will focus heavily on investing in large-scale content project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P).
- Korea Growth Investment Corp. has been appointed as the managing institution.

▪ Unlike traditional funds restricted to SMEs and venture businesses, the K-Content and Media Strategic Fund will support the scale-up of domestic production companies and other media and content industry players.[18)]

4. Status of Marine Fund of Funds Operations

▪ Established in 2019, the Marine Fund of Funds is managed by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with an operational period set from 2019 to 2035.

-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contributed KRW 1 trillion over five years (2019–2023), supplemented by KRW 522 billion in private investment for a combined KRW 1.522 trillion.
- Sub-funds have a maximum lifespan of eight years. Upon liquidation and investment recovery, the recovered funds are reinvested into new sub-funds.
- The primary investment targets are SMEs and venture companies in sectors such as marine emerging industries and traditional

17)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ess Release (2024), p.3.
18) Media and Content Industry Convergence Development Committee (2024), p.8.

industry innovation through advanced technology integration (with a mandatory 60% investment ratio in the primary target sectors until 2023 and 65% in 2024).

- Since its inception, the Marine Fund of Funds has established nine sub-funds: two in 2019, two in 2020, one in 2021, one in 2022, one in 2023 and 2 in 2024.[19)]
  - Sub-fund amounts range from KRW 7.0 billion to KRW 30 billion, totaling KRW 152.2 billion as of 2024.
  - From 2020 to November 2021, those companies in the primary investment areas are estimated to have received 66 investments totaling approximately KRW 61.35 billion.
  - It is also estimated that investments were made in 44 companies, with average amount of KRW 1.39 billion per company.

5. Distribution of Marine Industry and Status of Marine Fund of Funds Investment

- According to the 2022 Statistical Survey of Marine and Fisheries Industry, there were 25,916 marine businesses in total.
  - 31.0% (8,032 companies) were in Busan, 17.7% (4,594) in Gyeongnam, 10.3% (2,663) in Seoul, 9.6% (2,486) in Jeonnam, and 5.8% (1,502) in Ulsan.

19)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website (Accessed: 2024.9.15.). Disclosure information of Venture Capital Analysis (Accessed: 2024.11.01.)

- Total number of businesses in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on the southern coast (Jeonnam, Gyeongnam, Busan and Ulsan) is 64.1%, which means that two thirds of all businesses are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 The total sales of all marine businesses is KRW 165.7 trillion, and the sales of Seoul alone is KRW 69.5 trillion while it goes up to 47.0% if extended to the capital region (Seoul, Incheon, Gyeonggi).
-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marine and fisheries industry, Shipping and port is 31.1% (8,070 businesses), Building & repairing of ships and offshore plants 30.6% (7,932), and Marine service industry 25.7% (6,670).

▪ From 2020 to November 2024, Marine Fund of Funds invested KRW 613.5 billion to 44 businesses.

- Average investment to each marine business is KRW 13.9 billion in the same time period.
- Investment to businesses in Seoul was 30.6% (KRW 188 billion), followed by Busan (15.1%), Daejeon (11.2%), Jeonnam (6.7%), and the investment to the capital region amounted to 50.7% (KRW 311 billion)
- Investment to the Manufacturing of marine equipments was 41.9% (KRW 256.9 billion) of the total investment, followed by Manufacturing of part of ships and offshore plants (16.4%), and Marine professional or science & technology service (13.5%).
- Classified by the Marine emerging industries categories, investment to Traditional industry innovation was 31.6% (KRW 194 billion)

followed by Eco-friendly or high-tech ships 30.1% (KRW 184.5 billion), and others (22.7%, KRW 139 billion)

6. Key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Marine Fund of Funds

1) Key Issues

- Additional policy support and investment are necessary given the industrial conditions of the marine sector and the challenges faced by SMEs and venture companies.
  - The Marine Fund of Funds operates on a comparatively smaller investment scale than other sectoral accounts, and meeting the government's initial contribution target has created challenges in securing additional funding.
  - Immediate government action, such as creating a new separate account within the Korean Fund of Funds, is critical. Long-term strategies to increase private investment are also required.
- Regional investment imbalances and gaps pose significant challenges to activating investments and fostering marine industry growth.
  - Many marine and fisheries SMEs and venture companies are concentrated in the southern coastal region, while most venture capital and key investors predominantly operate in the capital region, such as Seoul.

- Building regional investment ecosystems and fostering investors who understand the marine sector and are favorable to marine -related businesses are crucial.

2) Improvement Measures

- Establishment of a New Marine Fund of Funds Account
- The creation of proposed “Ocean Living Area Special Fund”.
- Expanding the usage of O-Startup system
- Improve the O-Startup system to facilitate the sharing of relevant company information for investors.
- Performance Analysis of the Marine Fund of Funds
- Development of Specialized Marine Sector Investors
- Segmentation of Sub-Fund Focus Areas
- Target regional marine SMEs and venture companies.
- Provide targeted support for restarting businesses.
- Develop marine accelerators.
- Promote scale-ups and facilitate overseas market entry.
- Creation of New Policy Funds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해양모태펀드를 신설했다. 해양모태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벤처투자 모태조합으로 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해양계정에 해당한다. 그동안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벤처캐피탈 등 투자사들의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았고 그에 따라 민간부문의 투자가 미진한 수준에 머물렀다. 수산분야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수산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양분야, 특히 해양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수산 모태펀드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1] 그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모태펀드를 신설하게 되었다. 재간접투자인 모태펀드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민간 투자자의 역할을 정부가 빼앗지 않음으로써 투자시장 성장과 건강한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4.9.19.)

해수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해양모태펀드에 1,0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이는 당초 계획했던 총 출자금 규모에 해당한다.[2] 2024년까지 해양신산업 분야 모태출자펀드는 9개 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결성금액은 총 1,552억 원 규모에 달한다.[3]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모태펀드를 도입한 이후 연간 투자유치 기업은 1.6배, 투자유치액은 1.8배 증가하였다. 2019년에 투자유치 기업 50개 사, 투자유치액 857억 원에서 최근에는 79개 사, 1,568억 원(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평균)으로 규모가 커졌다.[4] 이러한 실적은 모태펀드를 통해 해양분야에 대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했던 해수부의 의도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모태펀드 운용기간은 2035년까지로, 이미 해수부가 목표로 했던 펀드 규모는 달성되었으나 해양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초 해수부는 모태펀드 1,000억 원 조성이 완결된 후에는 회수된 투자금을 활용해 자펀드를 계속 조성해 나가고자 하였다.[5] 그러나 2027년 이후에야 회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그 규모가 추가 투자가 가능한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다.[6]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과 민간 투자생태계의 실태를 검토하고, 해양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부의 출자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000억 원(매년 2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이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1.30.)
3)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24) 및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4.20.).
4)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24)
5)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1.30.)
6)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24)

2. 연구 목적

정부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했다. 이 연구는 국내 해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모태펀드의 출자 및 투자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9년에 신설된 해양모태펀드는 지금까지 5년간 운영되어 왔는데, 이 연구에서는 먼저 도입 이후 5년간의 출자·운용 현황을 검토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해양모태펀드의 운용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들과 해양산업의 투자 수요 등을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와 자펀드 결성, 해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해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이 연구는 해양모태펀드와 그 투자 대상이 되는 해양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1차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해양모태펀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와 해양모태펀드의 출자펀드(자펀드)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해양계정 이외의 한국모태펀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수산 모태펀드를 비롯한 여타 정책펀드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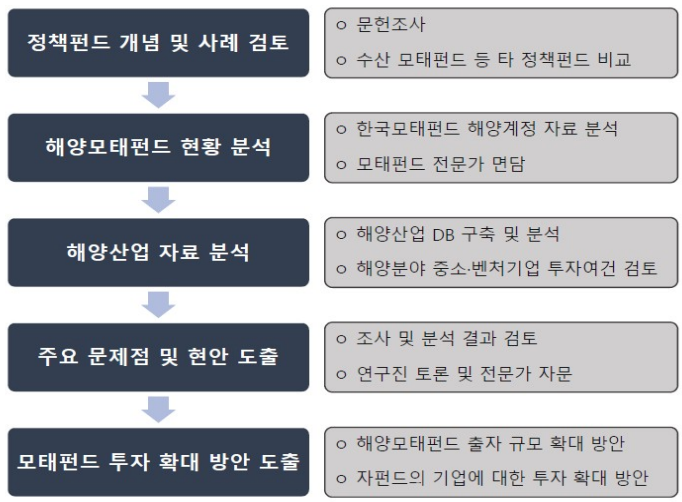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해양모태펀드의 운용 현황을 살펴본다. 한국모태펀드와 여타 정책펀드의 현황과 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한국모태펀드의 해양 계정인 해양모태펀드 현황과 운용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 해양산업 현황과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을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야별 해양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해양분야 기업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해양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앞의 제3장까지의 검토에서 도출된 해양모태펀드 관련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이어서 해양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과 펀드 운용을 개선함으로써 해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에 해당하며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해양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 조사, 한국모태펀드 및 해양산업 관련 자료 분석, 그리고 외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 면담 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한다.

먼저 해양산업 및 정책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과 해양모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조사하였다. 해양산업, 특히 해양신산업 분야 국가 계획, 정책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검토하였고,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 전문서적,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해양산업 및 정책펀드와 관련된 법률, 규정, 지침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모태펀드 및 국내 해양산업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벤처투자의 자료와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한국모태펀드 전반과 해양계정에 대해 파악하였고, 해양산업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분야별 해양산업 실태와 투자 현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조사를 통해 해양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전·현직 담당자들,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들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받았으며 현안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에서 각국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였고 상당 부분 실제로 집행해 왔다. 정부에 의해 실시된 이러한 직·간접적 기업 투자는 학문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정책펀드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국외 선행연구 중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벤처캐피탈(government venture capital) 연구가 있다. 민간 벤처 투자의 성격과 정부 벤처캐피탈의 필요성, 정부 벤터캐피탈의 효과, 시장 및 민간 투자환경에 대한 영향, 국가별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표 1-1〉 국외 정부 벤처캐피탈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Government Sponsored versus Private Venture Capital: Canadian Evidence • 연구자(연도): James A. Brander, Edward J. Egan, Thomas F. Hellmann (2010) • 연구목적: 벤처캐피탈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의 개념적 토대를 기술하고, 캐나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실시	• 문헌 연구 • 정량적 데이터 분석	• 문헌 검토 • 개념적 틀 • 캐나다 벤처캐피탈 시장 개요 • 데이터에 대한 기술 • 자료 분석과 결과
2	• 과제명: Effect of Venture Capital and Government Support on the Performance of Venture Firms in Korea • 연구자(연도): Dong-Won Sohn, Hyun Jeong Kim, Wonchang Hur (2012)	• KIS 데이터베이스의 벤처인증 기업 중 2,024개 기업 자료 활용 • 통계 분석	• 가설 개발 • 연구 설계 • 경험적 발견들

구분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연구목적: 한국과 같이 벤처캐피탈 시장이 덜 성숙한 사회에서 벤처캐피탈 효과가 존재하는지, 또 정부 지원이 실제로 기업의 성과와 IPO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3	• 과제명: The Value Added by Government Venture Capital Funds Compared with Independent Venture Capital Funds • 연구자(연도): Terttu Luukkonen, Matthias Deschryvere, Fabio Bertoni (2013) • 연구목적: 독립 벤처캐피탈의 부가가치 활동을 정부 벤처캐피탈이라는 특정 투자자의 활동과 비교	• CEO 대상 설문조사 (803 대상 기업 중 269 응답, 응답률 33.5%) • 설문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 관련 문헌과 연구가설 • 샘플 및 방법론 • 경험적 발견: 독립 벤처캐피탈과 정부 벤처캐피탈 비교 • 요약 및 결론
4	• 과제명: The Effects of Government-Sponsored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 Evidence • 연구자(연도): James A. Brander, Qianquian Du, Thomas Hellmann (2014) • 연구목적: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를 평가	• 문헌 연구 • 정량적 데이터 분석	• 개념적 틀과 문헌 검토 • 데이터에 대한 기술 • 부가성 가설에 대한 회귀분석 • 엑시트 가설에 대한 분석 • 투자 연장과 투자의 건전성
5	• 과제명: Government Roles in Venture Capital Development: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 연구자(연도): Lisa Jane Callagher, Peter Smith, Saskia Ruscoe (2015) • 연구목적: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정치적 · 정책적 관심으로 인해 정부가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개입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	•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유형 분류 • 각각의 접근법과 관련성이 큰 정부 정책의 사례 제시	• 연구 설계와 방법론적 접근 • 경험적 연구의 유형과 관련 정책 • 연구의 함의와 한계 • 시사점

구분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6	• 과제명: A Decision Making Model for Selecting Start-up Businesses in a Government Venture Capital Scheme • 연구자(연도): Eric Afful-Dadzie, Anthony Afful-Dadzie (2016) • 연구목적: 정부 벤처캐피탈의 투자 대상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 제안	• 초기 유망 스타트업 선정 기준 제시 • 직관적 퍼지 상황에서 TOPSIS 방법론 사용	• 연구 설계 및 방법 • 분석 결과 • 실제적 적용 • 연구의 독창성과 가치
7	• 과제명: When Can Government Venture Capital Funds Bridge the Equity Gap? • 연구자(연도): Yan Alperovych, Alexander Peter Groh, Anita Quas(2016) • 연구목적: 정부 벤처캐피탈 펀드가 투자 대상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파악하여 제시	• 주요 국가별 정부 벤처캐피탈 투자 자료 활용 • 투자 대상 기업의 통계 검토를 통한 정부 벤처캐피탈 펀드의 성과 확인	• 측정방법과 데이터 • 정부 벤처캐피탈이 자산 격차를 메우는 성공 요인들 • 추가적인 증거와 결과의 타당성
8	• 과제명: Direct and Indirect Government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n Europe • 연구자(연도): Yan Alperovych, Anita Quas, Thomas Standaert (2018) • 연구목적: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몇몇 유럽 국가들이 활용하는 혼합 정책에 대한 개관을 제시	• 자료 활용 (Thomson One, VICO, Capital IQ, PrivCo) • 통계 분석	• 데이터 검토 • 변수 설정 • 통계 분석 결과
9	• 과제명: Government Venture Capital Research: Fake Science and Bad Public Policy • 연구자(연도): Douglas Cumming and Sofia Johan (2019) • 연구목적: 통계분석을 통해 정부 벤처캐피탈의 민간 벤처캐피탈에 대한 구축효과를 검토	• 문헌 연구	• 정부 벤처캐피탈 주요 사항 • 정부 VC 연구의 첫 번째 문제: 성과 변수 오류 • 정부 VC 연구의 두 번째 문제: 사업 이전의 데이터 사용 오류 • 정부 VC 연구의 세 번째 문제: VC와 투자기업의 매칭 문제

구분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0	• 과제명: Government Venture Capital and Cross-border Investment • 연구자(연도): Arash Soleimani Dahaj, Brian Paul Cozzarin (2019) • 연구목적: 국내 정부 벤처캐피탈 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 펀드의 해외 시장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민간 벤처캐피탈 펀드의 국내 시장 투자에 정부 벤처캐피탈 펀드가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함	• Thomson ONE Private Equity 자료 사용(1971년부터 현재까지, 106개국 자료) • 통계분석	• 문헌 검토 및 가설 • 데이터와 경험적 방법 • 분석 결과 • 논의와 결론
11	• 과제명: The Role of Government Venture Capital Funds: Recent Lessons from the U.K. Experience • 연구자(연도): Robyn Owen, David North, Ciaran Mac an Bhaird (2019) • 연구목적: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 벤처캐피탈 지원의 효과성 검토	• 문헌 연구 • 정량적 데이터 분석	• 정부 출자 벤처캐피탈의 개념 • 데이터 검토 • 분석 결과(벤처기업 매출, 일자리 통계 등) • 정책 시사점과 남은 문제들
12	• 과제명: Venture Capital and Government Invovement from a Qualitativ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Perspective • 연구자(연도): Erika Jáki, Endre Mihály Molnár (2021) • 연구목적: 체계적 문헌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개입을 포괄적으로 검토	• 체계적 데이터 수집 (Business Source Complete, Academic Search Complete, Business Source Premier, EconLit, ScienceDirect) • 내용분석(귀납적 접근)	• 연구방법 • 데이터베이스의 분류와 분석 • 내용분석 결과 • 결론 및 제언
13	• 과제명: Ten Meditations on Government Venture Capital • 연구자(연도): Gordon Murray (2021) • 연구목적: 지난 20년 동안 ('00~'20) 정부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개입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	• 문헌 분석	• 초기 국가정책 형성 • 정부 벤처캐피탈의 자산과 책임 • 국가의 역할 관련 주요 이슈들

자료: 저자 작성

국내에서는 모태펀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해양모태펀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재하며 한국모태펀드 전체 또는 다른 계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주로 한국모태펀드의 현황, 성과, 운용실태 및 개선점에 대해 다루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1-2〉 한국모태펀드 관련 국내 선행연구

구분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한국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투자 성과 분석 • 연구자(연도): 박정서 · 윤병섭(2012) • 연구목적: 국내 벤처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운용 현황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분석	• 벤처캐피탈시장 성장기여도 분석 • 투자패턴 비교 • 투자기업 경영성과 평가	• 연구방법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민간자금 유치 효과 • 모태펀드의 벤처캐피탈 시장 성장기여도 • 모태펀드 수익률 • 시사점
2	• 과제명: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실태 분석 • 연구자(연도): 송원근 · 김준일 · 김혜영(2014) • 연구목적: 공공펀드인 모태펀드 운용 효율성 및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실태 분석을 통해 펀드 성과평가 상 개선점 및 제도적 개선점 제시	• 펀드 운용실적에 대한 계량적 분석 • 펀드 운용 관련 질적 평가	• 모태펀드 현황 • 모태펀드 성과 평가 • 모태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모태펀드 활성화 종합 방안
3	• 과제명: 한국 모태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및 매출효과 분석 • 연구자(연도): 김준일 · 송원근(2014) • 연구목적: 정부가 조성한 모태펀드의 정책적 효과를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 투자기업들의 고용 및 매출효과를 통해 분석	• 자료 DID 분석(한국벤처투자 2013년까지 투자기업 자료 및 NICE KIS VALUE 기업자료)	• 한국 모태펀드 현황 • 자료 및 연구 방법: DID 분석 • 자펀드 투자기업들의 매출 및 고용 성과 • 시사점
4	• 과제명: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김상욱(2014)	• 문헌분석 • 전문가 대상 인터뷰	• 모태펀드와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 •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역할과 문제점

구분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연구목적: 2006년 만들어진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 모태펀드 재원확충, 콘텐츠 가치평가 도입, 운영 투명성 강화 등 개선방안 • 해외투자자 규제 완화 방안
5	• 과제명: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모태펀드 문화개정 운영개선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김상욱(2014) • 연구목적: 민간 펀드와 달리 정부가 출자했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해야 하는 모태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계정 운영의 문제점과 제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	• 문헌조사 • 콘텐츠 제작사 인터뷰 • 모태펀드 운용관계자 및 창투사 관계자 의견 수렴	• 모태펀드 운용현황 •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의 문제점 •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 개선방안
6	• 과제명: 국내 모태펀드의 성과에 대한 연구 • 연구자(연도): 강원(2019) • 연구목적: 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펀드결성과 청산을 마친 펀드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	• 자료확보 및 표본 비교분석	•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 모태펀드 출자 여부에 따른 표본 구성 • 표본간 비교 분석 • 모태펀드의 성과와 역할
7	• 과제명: 민간 파트너에 의한 코프로덕션 성과 평가에 대한 정성적 연구 – 한국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남인우(2021) • 연구목적: 정부와 민간기업의 코프로덕션인 한국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기업의 평가를 확인하여이를 통해 정부가 보다 나은 정책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 포커스 그룹 인터뷰 • 문헌 분석	• 이론적 배경:코프로덕션 평가, 모태펀드 • 연구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연구문제별 결과 분석) •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정책펀드 전반 또는 기술창업지원펀드 등 모태펀드와 일부 관련성은 있지만 종류가 다른 펀드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도 해양모태펀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과 시사점을 담고 있다.

〈표 1-3〉 한국모태펀드 외 국내 정책펀드 관련 연구

구분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창업초기 투자단계 'Series A Crunch'의 원인분석과 마이크로 VC 펀드의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 • 연구자(연도): 양영석(2015) • 연구목적: 국내외 Series A Crunch 개념과 현상에 대한 초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Micro VC 펀드 도입에 대한 정책 방안 제시	• 국내외 문헌분석 • Series A Crunch 사례 연구	• 창업초기 투자 펀드 캐즘 구간(Series A Crunch)의 개념 및 사례 • Series A Crunch 초래 원인 • 엔젤투자와 전통적 VC 투자 사이의 가교펀드(Bridge Fund) 필요성 • Micro VC 펀드 도입 방안
2	• 과제명: 기술창업지원펀드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이종필 · 황영순(2017) • 연구목적: 중소기업(기술창업) 자금지원 정책이 융자에서 투자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부산지역 차원에서 지역에 투자된 창업지원펀드 운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회수된 펀드 투자자금이 기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 기존 사례 등 문헌연구 •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 설문조사	• 창업지원펀드와 정책펀드 사례 • 부산지역 창업지원펀드의 여건 분석 • 기술창업지원펀드의 효율적 운영방안
3	• 과제명: 국내 정책펀드 현황 및 제도 개선 • 연구자(연도): 남재우(2022) • 연구목적: 국내 정책펀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펀드의 설정-운용-청산이라는 전체 운용 단계별로 파악하고 이로부터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문헌 분석 • 정책펀드 신규 설정, 운용, 청산 및 회수라는 3단계별 평가	• 정책펀드 신규 설정 단계의 타당성 및 문제점 • 정책펀드 운용 체계 및 운용 과정 분석 • 정책펀드의 청산 및 회수 과정의 원칙과 주의점 • 결론 및 시사점
4	• 과제명: 기술금융펀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민간주도형 모태펀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강태훈(2023) • 연구목적: 민간주도형 모태펀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개선 방안과 현재 기술금융펀드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종합하여 보다 현실에 맞는 펀드 정책을 제안	• 모태펀드 운용 실태 분석 • 민간주도형-정부주도형 모태펀드 특성 비교 · 분석 • 운용사별 사례 분석	• 국내 모태펀드 현황 • 기술금융의 주요 개념 및 역할 • 국내외 기술금융펀드 동향 및 사례 • 정책적 제언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해양산업 관련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 모태펀드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주로 해양산업 발전에 모태펀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양모태펀드가 다뤄지고 있으며 이 연구들에서 모태펀드 자체의 개선이나 투자 전략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표 1-4〉 해양산업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 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황기형(2012) • 연구목적: 해양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공통의 투입요소와 상호의존성을 갖는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 전제하고, 가치사슬 확립을 통해 해양부문에 혁신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국내 해양산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 기업인 면담 조사	• 미래 해양산업 전망과 국내 해양산업 여건 분석 •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주요국의 사례 분석 • 해양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정책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 정책제언
2	• 과제명: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 연구자(연도): 박광서 외(2018) • 연구목적: 해양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 전용펀드 조성의 필요성 제시	• 국내외 문헌 분석 • 해양산업 관련 통계분석	• 정책펀드의 벤처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 정부의 정책펀드 확대 정책과 해양분야의 실태 • 각국의 해양산업 지원 정책 및 펀드 • 국내 해양산업 침체와 해양분야 전용펀드에 대한 요구
3	• 과제명: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한기원 외(2021) • 연구목적: 해양환경산업의 개념 및 범위 검토, 현황 및 실태 조사, 현안 타개를 위한 과제 제시 등을 통해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마련	• 문헌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관계자 인터뷰	• 해양환경산업의 개념 및 유형 • 국내외 환경산업 육성 사례 분석 • 해양환경산업 육성 여건과 이슈 •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자료: 저자 작성

2.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정책펀드, 한국모태펀드, 해양산업 등을 다루고 있는데 해양모태펀드 혹은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모태펀드에 대해 다루는 최초의 정책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해양모태펀드 운용 실태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해양산업과 해양분야 기업의 현황과 투자 실태를 분석하였고 해양모태펀드가 담당해야 할 정책적 수요를 파악해 보았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출자 및 투자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1-5〉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년간 해양모태펀드 출자 · 운용 실태를 검토하고, 국내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기존 연구는 1) 해양계정이 아닌 한국모태펀드 전체 또는 타 분야 계정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2) 기술창업지원펀드 등 관련성은 있지만 모태펀드와는 다른 펀드에 대한 연구이거나, 3) 해양산업 관련 연구지만 해양모태펀드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 • 본 연구는 해양모태펀드를 대상으로 최초로 수행하는 정책연구로 모든 기존든 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짐	• 국내외 문헌연구 • 해양모태펀드 및 해양산업 관련 자료 분석 • 관계기관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심층인터뷰	• 해양모태펀드 운용 현황 • 해양 중소 · 벤처기업 현황 및 투자 실태 • 해양모태펀드 투자 확대 방안

자료: 저자 작성

02
해양모태펀드 운용 현황

제2장에서는 해양모태펀드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모태펀드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모태펀드와 해양계정 운용·관리 체계 및 운용 현황, 그리고 한국모태펀드 외 다른 정책펀드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제1절 정책펀드의 개념과 한국모태펀드 현황

1. 정책펀드와 모태펀드의 개념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기관을 보통 벤처캐피탈(VC)이라고 부른다. 벤처캐피탈은 "기술경쟁력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설립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설립초기부터 자본과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기업을 육성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금융방식 또는 투자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일반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일반 금융기관이 일정 금리에 융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7) 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0), p.2.

후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면, 벤처캐피탈은 지분참여를 통해 주식을 획득함으로써 기업과 함께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같이 나누는 수익구조를 가진다. 투자금은 보통 기업공개(IPO)나 M&A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따른다.[8)]

〈표 2-1〉 벤처캐피탈과 일반 금융기관 비교

구분	자금지원 형태	리스크	성과보수	회수방법
벤처캐피탈	투자	높음	경영성과에 따라 차이	IPO, M&A 등
일반 금융기관	융자	낮음	일정 금리	일정 기간 후 원리금 회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0), p.3. 저자 재구성

여러 형태의 투자사 또는 투자자가 벤처캐피탈에 포함될 수 있다. 벤처캐피탈의 유형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LLC),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들 수 있다.

〈표 2-2〉 벤처캐피탈의 유형 및 특징

구분	관련법률	특징	참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벤처캐피탈 대다수를 차지하는 투자기관 형태 • 벤처투자조합, 농식품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PEF 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 평균 투자금액 10~30억 원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전자 공시 시스템 (http://diva.kvca.or.kr)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함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창업투자회사 대비 보다 더 초기단계) * 평균 투자금액 1~5억 원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창업기획자 등록제도)

8)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0), p.3.

구분	관련법률	특징	참고
유한회사 (LLC)	상법	• 벤처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조합, PEF 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 평균 투자금액 10~30억 원	-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	여신전문 금융업법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조합, PEF 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에 투자 및 융자 * 평균 투자금액 10~30억 원(이상)	여신전문 금융협회 (https://www.crefia.or.kr)
전문개인 투자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인투자자 중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투자자 * 평균 투자금액 1천만 원~1억 원(가장 초기)	한국엔젤 투자협회 (http://www.kban.or.kr)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0), p.4. 한국벤처투자(2022), p.9에서 재인용

2004년까지 정부는 매년 창업투자회사 등 밴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중소 · 벤처기업 투자를 시행하였다.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했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 1년 내에 완결되어야 했다. 시급히 투자를 추진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투자 부적격 대상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이러한 투자 방식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이 모색되었다.[9]

2004년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모태펀드 1조 원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여 정책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10]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정책펀드라고 한다.[11]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와 모태펀드는 동의어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12] 민간의

9) 김상욱(2014a), p.9.
10) 김상욱(2014a), p.10.
11) 남재우(2022), p.0.
12) 한국벤처투자(2022), p.5.

투자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펀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책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민간 투자 생태계의 성장이 될 것이다. 과도한 규모의 정책펀드 운용은 시장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오히려 민간 투자시장을 구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3)]

정부는 2005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고,[14)] 2009년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6천억 원, 정부재정 4천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였다.[15)]

모태펀드 관리 · 운용을 위해 2005년에 설립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는 한국모태펀드를 비롯하여 다수의 정책펀드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1조 6,195억 원의 정부 예산이 23개 정책펀드에 투입되었다.

〈표 2-3〉 정부 부처별 정책펀드 예산 집행 현황(2020년)

단위: 억원

부처	정책펀드 명	사업기간	예산액	운용기관
중기부	중소기업모태펀드(중진 계정)	2005~2035	7,400	KVIC
	중소기업모태펀드(소재부품장비 계정)	2020~	600	KVIC
환경부	중소기업모태펀드(환경 계정)	2017~	200	KVIC
교육부	중소기업모태펀드(교육 계정)	2017~	150	KVIC
문체부 문체부	중소기업모태펀드(문화 계정)	2006~2035	1,130	KVIC
	중소기업모태펀드(관광 계정)	2017~	300	KVIC
	중소기업모태펀드(스포츠 계정)	2015~	100	KVIC
	중소기업모태펀드(영화 계정)	2015~2025	240	KVIC

13) 남재우(2022), p.0~1.
1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1항의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2020년 타법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5) 김상욱(2014a), p.10.

단위: 억원

부처	정책펀드 명	사업기간	예산액	운용기관
국토부	중소기업모태펀드(도시재생 계정)	2020~2027	200	KVIC
	중소기업모태펀드(국토교통 혁신계정)	2020~2027	100	KVIC
	글로벌인프라펀드(GIF)	2017~2034	300	KIND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PIS)	2019~2049	500	KIND
과기부	중소기업모태펀드(과기정통 계정)	2014~	150	KVIC
	중소기업모태펀드(연구개발특구 계정)	2020~2028	95	KVIC
특허청	중소기업모태펀드(특허 계정)	2006~2035	200	KVIC
해수부	중소기업모태펀드(해양 계정)	2019~2035	200	KVIC
	수산모태펀드	2010~2040	70	농금원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2016~2022	530	선박금융
	원양어선 안전펀드	2019~2023	130	선박금융
농식품부	농식품 모태펀드	2010~2040	350	농금원
금융위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2018~2020	500	K-Growth
	혁신모험펀드(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2020~2021	2,000	K-Growth
	기업구조혁신펀드	2018~	750	K-Growth
합계			16,195	

주: KVIC(한국벤처투자),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농금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선박금융(세계로 선박금융), K-Growth(한국성장금융)
자료: 남재우(2022), p.4.

2. 한국모태펀드 및 국내 정책펀드 현황

1) 한국모태펀드 현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중소기업모태펀드)는 2005년 7월 15일에 결성되었고 운용기간은 30년(2005~2035)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총 13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출자하였고,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규모는 총 8조 8,968억 원에 이른다(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진계정, 청년계정, 혁신모험계정 등 총 19개 계정이 주 출자 분야로 설정되어 있다.[16)]

〈표 2-4〉 한국모태펀드 주 출자 분야

구분	주 출자 분야(계정)	투자 대상
1	중진계정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등에 투자하는 펀드
2	청년계정	청년창업기업 투자펀드
3	혁신모험계정	창업초기기업 · 혁신성장기업 · 농수산벤처기업 투자펀드
4	소재부품장비계정	소재부품장비분야 투자 펀드
5	엔젤계정	엔젤매칭투자조합 등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6	지방계정	지방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7	문화계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8	관광계정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9	스포츠계정	스포츠산업진흥법 상 스포츠산업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10	영화계정	한국영화 등에 투자하는 펀드
11	특허계정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우수발명의 이전알선과 사업화 등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12	과기계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한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기통신역무제공 및 서비스 등 방송통신사업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13	연구개발특구계정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투자 펀드
14	보건계정	보건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15	환경계정	미래환경산업, 미세먼지관련 기업 투자 펀드
16	해양계정	해양신산업 관련 기업 투자펀드
17	도시재생계정	구도심 도시재생을 목표로 관련 기업 투자펀드
18	국토교통혁신계정	국토교통혁신산업 기업 투자 펀드
19	교육계정	대학창업, 학생창업 기업 투자펀드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6.). 저자 재구성

16)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6.)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부처별 신규 투자 실적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186,4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9,483억 원, 특허청 12,567억 원의 순이었다. 2019년부터 모태펀드 출자를 시작한 해양수산부는 390억 원으로, 2017년부터 투자가 시작된 교육부나 2018년부터 투자가 시작된 환경부, 2020년부터 투자가 시작된 국토부와 더불어 연간 신규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처에 포함된다. 반면, 중기부나 문체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모태펀드 운용 기간이 길었다는 점도 있지만 한국모태펀드 내에 다수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그들의 상대적으로 큰 투자 규모의 이유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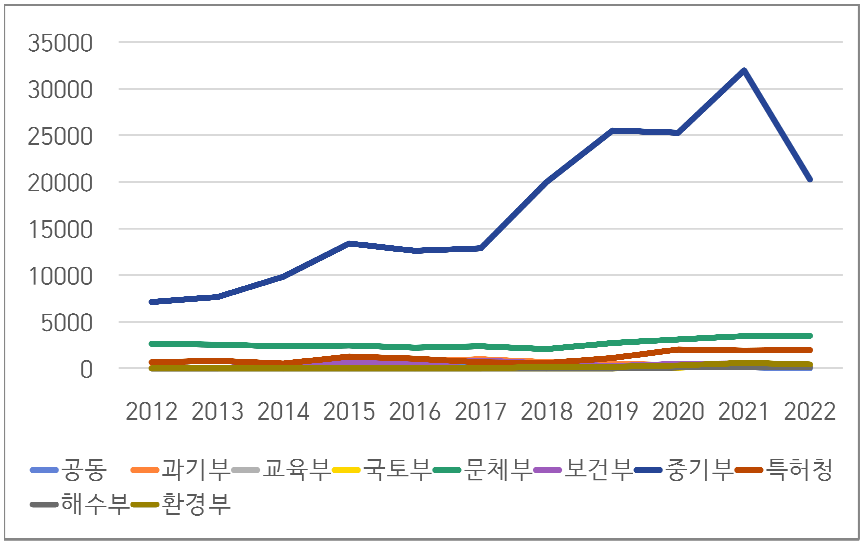
〈표 2-5〉 한국모태펀드 정부 부처별-연도별 신규 투자 실적(2012~2022)

단위: 억원

부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공동	0	0	0	0	245	209	276	524	308	127	23	1,712
과기부	54	20	112	366	761	991	673	487	375	475	408	4,722
교육부	0	0	0	0	0	2	94	100	164	195	179	734
국토부	0	0	0	0	0	0	0	0	91	258	312	661
문체부	2,638	2,553	2,368	2,453	2,229	2,367	2,078	2,725	3,109	3,467	3,496	29,483
보건부	0	0	461	564	543	840	530	265	489	545	192	4,429
중기부	7,126	7,650	9,831	13,393	12,606	12,877	19,987	25,498	25,278	31,954	20,257	186,457
특허청	659	807	524	1,268	1,051	649	571	1,117	2,033	1,920	1,968	12,567
해수부	0	0	0	0	0	0	0	0	105	166	119	390
환경부	0	0	0	0	0	0	182	165	317	597	426	1,687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7.). 저자 재구성

〈그림 2-1〉 한국모태펀드 정부 부처별-연도별 신규 투자 실적(2012~2022)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7.). 저자 재구성

한국모태펀드의 지역별 신규 투자 실적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적으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높은 수도권 집중도가 눈에 띄는데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의 전체 신규 투자금액 비율이 70.72%이었고 그 중 서울이 47.7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5대 광역시 중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한 대전광역시가 5.47%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는 기업체 수가 많기도 하지만 투자사들 또한 그곳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데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산(1.95%), 경남(1.90%), 전남(0.51%) 등 해양수산 분야 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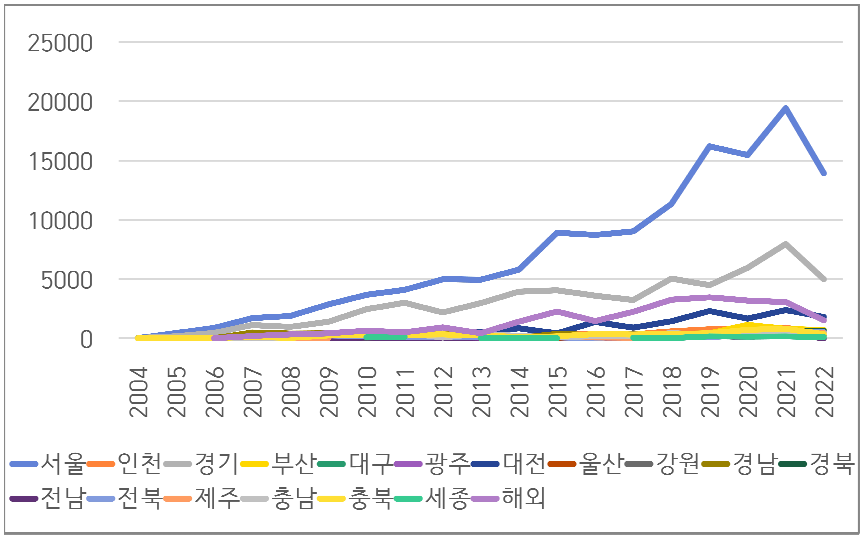
〈표 2-6〉 한국모태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실적(2004~2022)

단위: 억원, %

구분	지역	금액	비율
수도권	서울	134,334	47.73
	인천	6,554	2.33
	경기	58,145	20.66
			70.72
5대 광역시	부산	5,500	1.95
	대구	3,313	1.18
	광주	2,403	0.85
	대전	15,384	5.47
	울산	1,442	0.51
			9.96
지방	강원	2,869	1.02
	경남	5,342	1.90
	경북	4,181	1.49
	전남	1,443	0.51
	전북	2,777	0.99
	제주	1,816	0.65
	충남	4,233	1.50
	충북	5,340	1.90
	세종	971	0.35
			10.29
해외	해외	25,373	9.02
합계		281,420	100.00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7.).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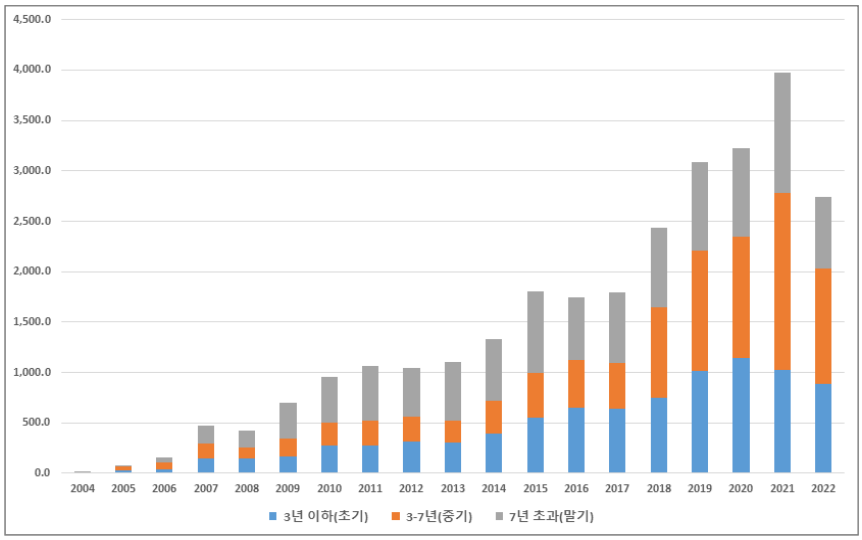
〈그림 2-2〉 한국모태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실적(2004~2022)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7.).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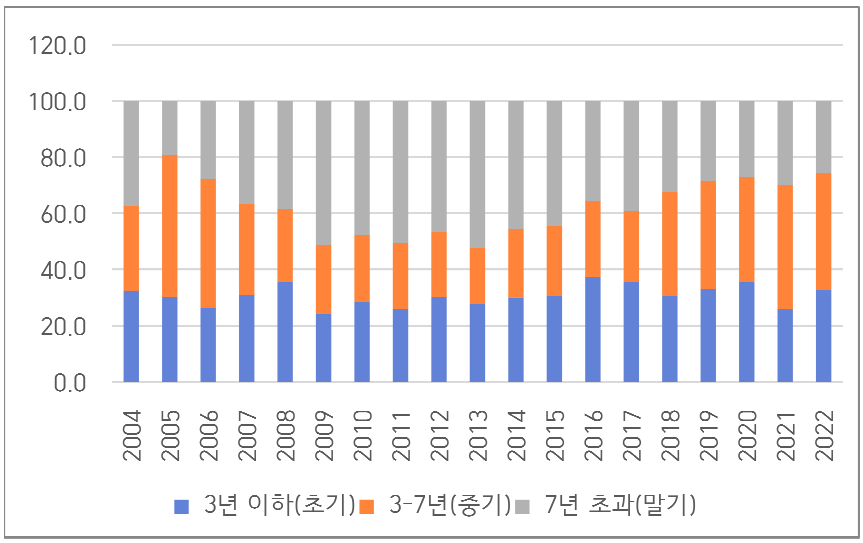
2004년~2022년간 업력별 신규 투자 실적을 보면 한국모태펀드의 연간 투자 규모가 전체적으로 19년간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의 신규 투자 실적 12억 원에서 2022년에는 2,738억 원으로 228배 증가하였다. 투자 대상 기업을 업력별로 3년 이하는 초기, 3~7년을 중기, 7년 초과를 말기라고 할 때 업력별 투자 금액의 비율을 보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기간 동안 대부분 30%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 중기와 말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005년에 말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최소치인 19.4%를 기록하고 이후 계속 증가해 2013년에 최고치인 52.2%를 기록했으나 다시 줄어들어 2022년 25.8%까지 감소했다. 반면 중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21년 44.0%, 2022년 41.6%를 기록하는 등 가장 많은 투자가 중기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 한국모태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실적(2004~2022)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7.). 저자 재구성

〈그림 2-4〉 한국모태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비율(2004~2022)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7.). 저자 재구성

2) 국내 정책펀드 사례

앞서 한국모태펀드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여러 정책펀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해양모태펀드와 관련이 있거나 최근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정책펀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수산 모태펀드

먼저 해양모태펀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수산 모태펀드의 경우 해양모태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가 출자하는 정책펀드지만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에 속한 계정은 아니다. 수산 모태펀드의 운용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며, 수산 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은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다.[17] 해양수산부가 해체되고 전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시절인 2010년에 수산 분야 모태펀드가 조성되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1월 25일에 제정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24일 농금원의 전신인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18]

농금원 홈페이지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를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펀드시스템으로,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또는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방식의 Fund of Funds"라고 설명하고 있다.[1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대상 분야는 농산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식품산업, 소재 및 생산설비 산업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20]

1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0.)
1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0.).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2014년 9월 30일에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다.
1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0.)

〈표 2-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투자 대상

구분	분야	내용	비고
농어업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 묘목 재배업 등	
	축산업	동물(수생동물 재외)의 사육업 · 증식업 · 부화업 · 종축업 등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 · 자연수목원의 조성 · 관리 ·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 등	
	수산업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관련 산업 등	
식품산업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 · 가공 · 제조 · 조리하는 산업 등	
		위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 · 보관 ·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등	
소재 및 생산설비 산업	소재 및 생산설비 산업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 농약, 비료, 양액,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재와 그 밖에 유사한 것	매출액 중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생산설비	소재를 제조 · 가공하는 설비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기계 또는 공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농림수산 식품 관련 산업	농업 관련 산업	농산물 유통 · 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등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 유통 · 가공업, 야생조수 사육업, 분재생산업 및 조경업 등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2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1.)

구분	분야	내용	비고
농림수산 식품 관련 산업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물 유통 · 가공업, 수산바이오, 종묘산업, 해양심층수산업 등	
		낚시 등 수산레저산업 및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식품산업 관련 산업	식품포장용기 제조업 및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해외농업개발사업자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2조 제6호의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원양사업자	「원양산업발전법」제2조 제4호의 원양산업자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 9. 11.). 저자 재구성

수산 모태펀드는 2023년까지 정부 출자금이 1,735억 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민간 출자 규모는 790억 원으로 확인된다.[21]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수산업 및 관련 분야 출자펀드는 19개가 결성되었고 총 2,904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22] 투자분야별로 보면 수산업 펀드가 13개로 총 2,070억 원, 수산벤처창업 펀드가 4개로 총 501억 원, 스마트양식산업혁신 펀드 1개 133억 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펀드 1개 200억 원이다. 다만 2010년에 결성된 농림수산식품 분야 펀드인 그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경우 '수산'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나 농업 분야와 분리되지 않아 실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21) 해양수산부 업무협의 자료(2024.5.29.)
2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1.).

〈표 2-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중 수산 관련 펀드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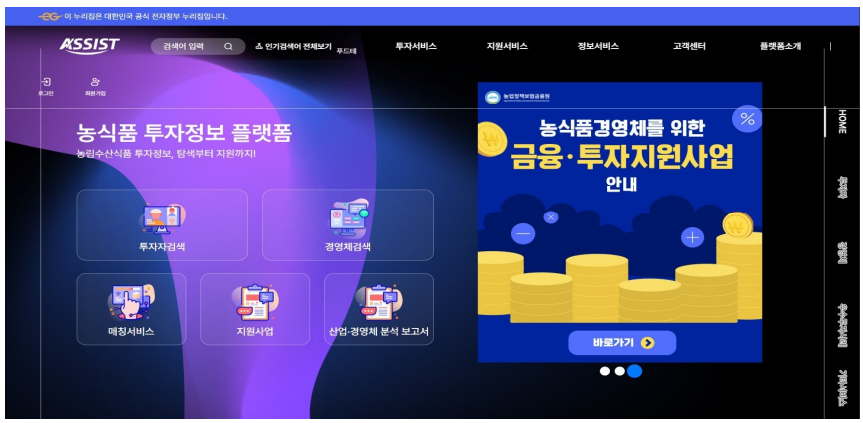
조성 년도	펀드명	투자분야	투자기간	펀드 규모
2023	가이아수산벤처창업 투자조합2호	스마트양식 산업혁신	2023.10~2027.10	133억
2022	유니온수산 투자조합	수산업	2022.07~2026.07	100억
2022	넥스트웨이브 2022 수산벤처 투자조합	수산벤처창업	2022.07~2026.07	96억
2021	아이디브이-아이피 수산전문투자조합 3호	수산업	2021.11~2025.11	150억
2021	엔브이씨 2021 수산벤처 투자조합	수산벤처창업	2021.07~2025.07	105억
2020	가이아수산벤처창업 투자조합1호	수산벤처창업	2020.07~2024.07	150억
2020	비엔케이 수산 투자조합 제1호	수산벤처창업	2020.07~2024.07	150억
2019	마이다스동아-엔에스씨 수산펀드 2호	수산업	2019.12~2023.12	200억
2019	IDV-IP수산전문 투자조합 2호	수산업	2019.12~2023.12	150억
2018	KB 신자산어보 투자조합	수산업	2018.07~2022.07	150억
2017	POSCO-NSC 수산 투자조합	수산업	2017.08~2021.08	150억
2016	K-Innovation 수산전문 투자조합	수산업	2016.09~2020.09	200억
2015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3호	수산업	2015.07~2019.07	150억
2014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2호	수산업	2014.08~2018.02	150억
2013	IDV-IP 수산전문 투자조합	수산업	2013.07~2017.01	150억
2012	엘엔에스 농수산업 투자조합	수산업	2012.07~2016.01	160억
2011	유니 수산식품 투자조합 1호	수산업	2011.12~2015.06	160억
2010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수산업	2011.08~2015.02	200억
2010	그린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	2011.04~2014.10	200억
합계				2,904억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1.). 저자 재구성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은 각각의 펀드마다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펀드는 지방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하고 있다. 2023년 및 2024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수산투자 계정)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40%) 이상을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경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선정 시 우대하였다.[23]

농금원은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운영하고 있으며 ASSIST는 농금원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기업(경영체), 투자자, 연구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업 정보를 올림으로써 투자 제안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투자자들에게는 잘 알기 힘든 농림수산식품 분야 경영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지원한다.[24]

〈그림 2-5〉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



자료: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홈페이지(검색일: 2024.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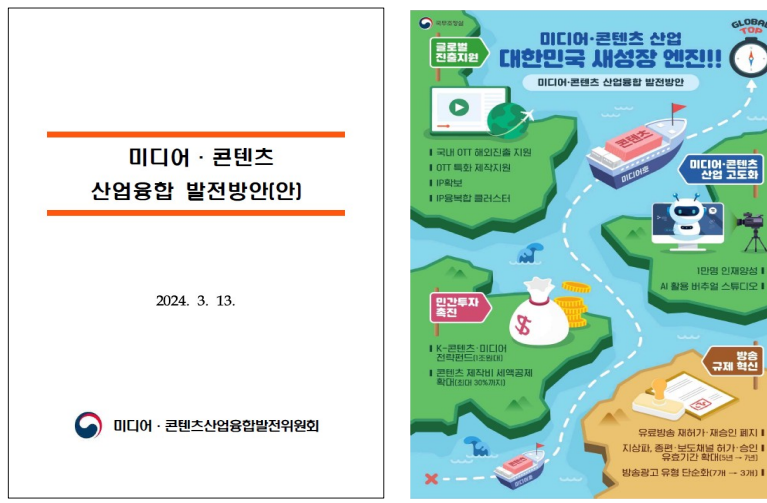
23) 2023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계획(수산투자 계정) 공고(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고 제2023-3호), 2023.2.20., 농금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3.); 2024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계획(수산투자 계정) 공고(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고 제2024-7호), 2024.2.28., 농금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3.)

24)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검색일: 2024.9.12.)

(2) 케이-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신규로 '케이(K)-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했다.[25] 정부는 미디어 ·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 · 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2024.3.13.)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대형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 · 활용에 투자하기 위해 1조 원대 펀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6]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2백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7]

〈그림 2-6〉 미디어 · 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24.3.13.)



자료: (좌) 미디어 ·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2024). (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3.13.)

첫해인 2024년에 총 2,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그 중 정부가 800억 원을(문체부 450억 원, 과기정통부 350억 원) 출자하고 콘텐츠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1,200억 원을 출자한다. 「미디어 · 콘텐츠

2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3.13.)
26) 미디어 ·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2024), p.8.
2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3.13.), p.3.

산업융합 발전방안」은 이렇게 조성한 2,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와 추가로 민간자금 4,000억 원을 출자받아 총 6,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28]

기존의 한국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이 운용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신규로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을까? 신규 펀드의 구조를 보면 한국모태펀드와 동일한 재간접펀드(모태펀드) 형식을 가지고 있고 미디어 콘텐츠 분야라는 투자대상도 일견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새로운 펀드 조성의 필요성은 자본의 규모와 지식재산권 보유와 관련되어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형 콘텐츠 제작을 위해 충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주요 컨텐츠의 IP를 소유하고 자산화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국내 제작사는 제작비와 일정 수준의 수익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K-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 신규 조성이 제시되었다.[29]

〈그림 2-7〉 K-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운용 체계

자료: 미디어 ·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2024), p.8.

28) 미디어 ·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2024), p.8.
29) 미디어 ·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2024), p.2.

그에 따라 신규 전략펀드는 IP 기반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또 한국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이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되는데 반해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는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 없이 국내 제작사 등 미디어·콘텐츠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30]

한국모태펀드와 별개의 펀드로 조성되기 때문에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모펀드의 위탁운용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지원한 3개사 중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가 풍부한 정책펀드 운용 경험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평가받아 최종적으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다.[31]

(3)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중기부는 2023년 8월 30일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32] 이는 윤석열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종합대책은 크게 5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창업 및 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둘째, 벤처 투자에 있어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며, 셋째,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넷째,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고 규제 완화를 확대 추진하며, 다섯째,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표 2-9〉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분야

3대 핵심 분야	출자 대상 자펀드
초격차	• 시스템 반도체, AI 등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목적 자펀드
세컨더리	• 구주 일반세컨더리, 펀드 LP지분 유동화 및 M&A 투자 목적 자펀드
K-글로벌	• 해외 Flip 기업, 해외진출 목적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자펀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p.26.

30)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2024), p.8.
3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3.1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4.24.)
3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3.8.30.)

이를 위해 조성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2조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모태펀드와 더불어 금융권, 대기업, 연기금, 성공한 벤처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투자에 참여하는 구상이다. 출자 분야는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이 3대 핵심투자분야에 해당하며 각각의 분야에 속하는 자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첫해인 2024년에 총 8,376억 원 규모로 20개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33] 정부는 모태펀드 2,310억 원을 출자했으며 19개 민간 기관의 출자가 3,280억 원 규모로 확인된다. 민간 출자자 중 6개 기관이 벤처투자조합에 처음으로 출자하게 되었으며 그 외 9개 기관이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된 금액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표 2-10〉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2024년 선정 결과

단위: 억원, 개

분야	최종 선정				주목적 투자분야
	민간출자	모태출자	결성예정	펀드 수	
초격차	2,730	1,935	6,876	17	10대 초격차 분야 벤처 · 스타트업 등
세컨더리	550	375	1500	3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의 구주 등 인수
계	3,280	2,310	8,376	20	

자료: 중기부 보도자료(2020.9.19.)

33) 중기부 보도자료(2020.9.19.)

3. 한국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한국벤처투자는 13개 기관이 출자한 19개 한국모태펀드 계정을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등 출자기관은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에 투자(출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출자기관에 펀드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나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 · 감독 권한은 전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지고 있다.[34] 중기부는 담당 부처로서 모태조합 운용지침을 제시하고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모태조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펀드를 관리 · 운용하며 자펀드에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구성하게 된다.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태조합운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모태조합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여하며 펀드 운용에 대한 심의의견을 제출하기도 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출자펀드 조성을 위해 계정별로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선정된 벤처캐피탈 등 투자사를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하여 출자펀드가 결성된다. 이때 출자펀드는 모태펀드에서 투자된 금액과 민간 투자금이 합쳐져서 조성된다. 출자펀드 혹은 자펀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목적 투자분야 기업과 기타 투자대상에 대해 투자를 실시한다. 따라서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주체는 정부부처나 한국벤처투자가 아닌 벤처캐피탈이 주도하는 자펀드가 된다.[35]

34) 남재우(2022), pp.11~12.
35)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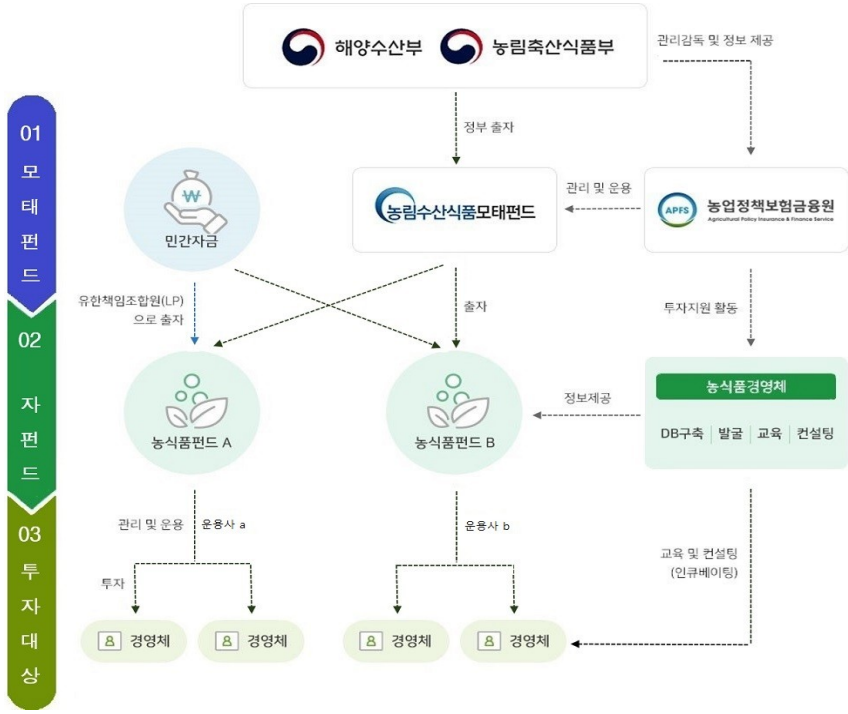
〈그림 2-8〉 한국모태펀드 운용구조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3.)

이와 같은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운용 방식은 재간접펀드 형태로 정책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 수산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모펀드에 출자하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위탁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관리·운용하며 자펀드 공모를 통해 농식품펀드에 출자하며 이때 민간 투자자의 출자금이 더해져 자펀드가 조성된다. 각각의 자펀드는 투자분야에 따라 경영체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그에 따라 농림부 및 해수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6]

36)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3.)

〈그림 2-9〉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운용구조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3.)

수산 모태펀드 운용체계가 한국모태펀드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첫째, 출자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출자기관이자 동시에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농금원 홈페이지의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운용체계를 보면 한국모태펀드의 모태조합운용협의회에 해당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모태펀드 관리·운용 이외에 농금원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농금원은 새로운 유망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하고 농식품경영체 관련 DB를 구축하며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37]

제2절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의 조성 및 운용 실태

1. 해양모태펀드 도입 및 확대

과거 해양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와 높은 고용증가율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야 정책펀드의 부재로 인해 투자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투자를 유치한 해양분야 기업은 22개로 같은 기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전체 기업들 중 0.4%에 불과했다. 그에 따라 해양분야 전용펀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8]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정책펀드 수요에 대응하여 2019년 해양모태펀드를 신설하였다.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에 해양계정을 신설하고 2019년부터 2035년까지 운용기간을 설정하였다. 단 2035년까지로 한 것은 이 해가 예정된 한국모태펀드 종료시점이기 때문이며 그 이후 해양 계정의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200억원을 출자하여 총 1,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민간 투자 430억 원을 더해 총 1,43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첫해인 2019년에는 정부 출자금 200억 원에 민간 출자 86억 원 이상을 예상하여 286억 원 이상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39]

〈그림 2-10〉 해양모태펀드 운용구조

정부 출자		펀드 조성		투자		회수 · 청산		재출자
5년간 ('19-'23) 매년 200억원 출자	▷	민간 출자 및 子 펀드 조성	▷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 실시	▷	투자금 회수 및 子 펀드 청산	▷	신규 펀드 조성을 위해 회수금 재출자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1.30.)

3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3.)
38) 박광서 외(2018), pp.8, 13~15.
3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1.30.)

자펀드의 존속기간은 최대 8년 이내로, 투자금 회수와 자펀드 청산이 이루어진 후에는 회수된 금액은 신규 자펀드 조성에 재출자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대상은 중소 · 벤처기업이며 주목적 투자대상 분야는 해양신산업과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전통산업 혁신이다.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은 60%로 설정되어 있다.

〈표 2-11〉 해양모태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분야	내용
신산업 "도약"	• (목적) 「해양수산 신산업 로드맵」('18.7.) 등에서 지정한 중점 육성 대상 신산업 분야의 "도약"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지원분야)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자원개발, 해양 치유 등 레저, 친환경 선박 · 기자재, 첨단해양장비, 스마트 해운 · 항만 등[40]
전통산업 "혁신"	• (목적) 해운 · 조선 · 항만 등 전통산업에 4차 산업 등 첨단 기술 융합을 통한 전통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지원분야) AI, IT, IoT,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 융합 분야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1.30.)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도별 출자사업 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모태펀드에 매년 100~200억 원씩 6년간(2019~2024) 총 1,000억 원을 출자하였다. 출자 분야는 매년 동일하게 '해양신산업'이었으며, 2024년에는 처음으로 '해양신산업(일반)'과 '해양신산업(초기창업기업)'을 구분하여 공모하였다.[41] 한편 2024년에는 당초 2년 이상 8년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던 기업 투자기간을 4년 이내로 변경하였는데(자펀드 존속기간은 8년 이내), 이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수부가 밝혔다. 또한 그동안 60%로 제시되었던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을 2024년에는 65%로 변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42]

40) 2022년에 수립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은 ① 친환경 · 첨단 선박, ② 스마트 블루푸드, ③ 해양레저관광, ④ 해양바이오, ⑤ 해양에너지 · 자원을 5대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로 규정하고 있어 해양모태펀드 설립 당시의 해양신산업 세부 분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41)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5.). 연도별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참고함.
4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30.)

〈표 2-12〉 해양모태펀드 연도별 출자사업 계획(해양신산업 분야)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200	200	100	200	130	170	1,000
결성목표액	286	286	143	286	186	243	1,430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70%	70%	70%	70%	70%	70%	-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5.). 연도별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해양모태펀드 운용 실적

2019년 이후 해양신산업 분야의 여러 해양모태펀드 자펀드가 결성되어 운용 중이다.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등 자료를 보면 2019년에 2개, 2020년에 2개, 2021년에 1개, 2022년에 1개, 2023년에 1개, 2024년에 2개로 총 9개의 출자펀드가 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43] 자펀드의 결성금액은 7,000~30,000백만 원으로 2024년까지 총 152,200백만 원의 펀드가 조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약 8년의 운용기간 후 만기될 예정이다.

〈표 2-13〉 해양모태펀드 출자펀드 현황(해양신산업 분야)

단위: 백만원

연도	운용사	조합명	만기일	결성금액
2019	캐피탈원	캐피탈원 해양신산업 투자조합	2027.08.18.	14,500
2019	하이투자 파트너스	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2027.10.07.	15,000
2020	케이앤투자 파트너스	BNK-케이앤 해양신산업 투자조합 제1호	2028.06.11.	15,500

43)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5.); DIVA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검색일: 2024.11.01.)

단위: 백만원

연도	운용사	조합명	만기일	결성금액
2020	인라이트벤처스	인라이트10호 오션스타펀드	2029.01.03.	14,300
2021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	해양신산업등대 투자조합	2029.11.07.	14,300
2022	마이다스동아 인베스트먼트	마이다스동아-엔브이씨 2022 해양신산업투자조합	2030.12.25.	30,000
2023	케이앤투자 파트너스	BNK-케이앤 해양 신산업 투자조합 제2호	2031.11.27.	20,000
2024	서울투자 파트너스	서울투자해양신산업 벤처펀드	2032.06.24.	21,600
2024	탭엔젤 파트너스	2024 해양신산업 딥테크 투자조합	2032.07.04.	7,000
	합계			152,200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9.15.); DIVA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검색일: 2024.11.01.).

각각의 자펀드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목적분야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66회, 약 613.5억 원이 이루어졌다. 총 44개 기업이 투자를 유치했으며 평균 투자금액은 약 13.9억 원이다.[44)]

이상 해양모태펀드의 자펀드 결성 현황과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을 개략적으로 확인하였다. 해양모태펀드의 본격적인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매출 신장, 수익 변화, 일자리 증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의 확인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기업의 연도별 실적 자료를 확보할

44) 해양모태펀드 주목적분야 기업 투자 실적 관련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24.6.3.). 투자대상의 주목적분야 해당 여부와 그에 대한 성과는 펀드 청산 이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기 제시된 수치는 추정치에 해당함.

필요가 있다. 한편 해양모태펀드의 경우 아직 신설된 지 5년밖에 안 된 초기에 해당하므로 본격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도 할 수 있겠다.

제3절 시사점

제2장에서 한국모태펀드와 여타 정책펀드, 그리고 해양모태펀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해양모태펀드가 목표한 총 출자 규모를 달성함에 따라 추가적인 출자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도 해양분야 모태펀드는 타 분야에 비해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해양계정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을 다른 계정과 비교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출자금 및 민간 투자를 확대하여 다른 분야에 못지않은 기업 투자 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24년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1천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정부 출자 여부가 불명확하다. 아직 해양분야의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해양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지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모태펀드는 지역별 투자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투자의 70% 정도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수도권 기업들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밴처캐피탈 등 국내 투자 생태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더 많고 관심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해양분야 기업들의 지역별 분포와 연관해서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농림수산업 모태펀드 등 다른 분야 정책펀드들이 자펀드 구성 시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우대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한국모태펀드 투자대상의 업력별 분포에서 말기 기업(창업 7년 이상)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태펀드를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창업초기 기업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이유,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자료의 민감성 때문에 해양모태펀드의 세부적인 자료는 공유되지 않는다. 특히 자펀드 투자대상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펀드 운용기관들 이외의 외부인들이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내부 자료에 대한 분석과 활용을 한국벤처투자 주도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투자 관련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금융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최적임자라 할 수 있다. 한편 해양분야 기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농금원의 ASSIST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최근 정책펀드를 신설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출자하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경우 한국모태펀드가 아닌 신규 정책펀드로 신설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명백한 국가적인 필요성, 투자대상 기업의 성격 등 한국모태펀드와의 뚜렷한 차이 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경우에는 민간 참여 확대, 지역 창업생태계 육성, 벤처·창업 세계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03
해양산업의 분포 및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제1절 해양산업의 범위와 분포 현황

1. 해양산업의 범위

1) 해양수산업의 정의와 범위

'해양수산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 · 보전 · 개발 · 이용에 관련한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때 '해양'이란 "대한민국의 내수 · 영해 · 배타적경제수역 · 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 ·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 · 이용 · 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의미한다. 또한 '해양수산자원'은 "개발 · 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 해양광물자원 · 해양에너지 · 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뜻한다.

해양수산업의 정의와 함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해양수산업에 포함되는 산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총 13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3-1〉 해양수산업의 정의 및 범위

구분	근거	주요 내용
정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 · 보전 · 개발 · 이용에 관련된 산업 – 해양: 대한민국의 내수 · 영해 · 배타적경제수역 · 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 ·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 · 이용 · 보전에 참여 가능한 해역 – 해양수산자원: 개발 · 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 해양광물자원 · 해양에너지 · 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
범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 수산자원의 채취 · 포획 · 양식 · 가공 · 유통과 관련된 산업 • 해운업, 항만건설 · 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로부터 해양광물을 탐사 · 채집 · 추출 · 제련 · 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 · 장비의 개발 · 운영과 관련된 산업 • 해양에너지의 개발 · 이용과 관련된 산업 •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 · 설치 · 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 · 장비의 개발 · 운영과 관련된 산업 •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복원과 관련된 산업 • 어촌 ·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 · 레저와 관련된 산업 •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 · 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 태풍, 조류 대발생, 조수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 해일, 파랑,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 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산업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통계청은 산출물과 투입물 및 관련 활동을 기준으로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출물'은 "해양수산자원 채취 · 포획 · 양식 · 채집 · 추출 결과 산출물", 즉 1차 산출물과 이를 투입물로 가공한 2차 산출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투입물'은 "해양수산업 관련 1, 2차 산출물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투입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은 "해양수산자원 보호 · 보존 · 개발 · 관리 · 레저 · 스포츠 등에 필요한 재화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45]

이처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키워드로 하여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는 해양수산업은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로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분류체계인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마련하여 2018년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다. 이 분류체계에 따르면 해양수산업은 해양자원 및 건설업,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 수리업,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등 9개의 대분류로 구분된다.[46]

〈표 3-2〉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코드	대분류	코드	중분류
1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11	해양자원 생산, 공급 및 개발업
		12	해양바이오 제품 제조업
		13	항만 및 해상 교량 건설업
		14	해양 수산플랜트 및 구조물 공사업
2	해운항만업	21	해운업
		22	항만업
3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31	선박 건조 및 수리업
		32	해양플랜트, 구조물 건조 및 수리업
		33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업

45)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selectIntroduce.do?gubun=2&bbsId=sea_ug
46) 이는 다시 중분류 29개 및 세분류 143개로 구분됨.

코드	대분류	코드	중분류
4	수산물 생산업	41	어로어업
		42	양식어업
		43	어업 관련 서비스업
		44	소금 채취업
5	수산물 가공업	50	수산물 가공업
6	수산물 유통업	61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62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7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71	해양레저관광업
		72	수산레저관광업
8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81	해양 기자재 제조업
		82	수산 기자재 제조업
9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91	해양폐기물 처리 및 정화 복원업
		92	해양수산 기자재 도소매업
		93	해양수산 기자재 수리업
		94	해양수산인력 고용 알선 및 공급업
		95	해양수산교육 서비스업
		96	해양수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	해양수산 금융 및 보험업
		98	해양수산 협회 및 단체
		99	수산물 요리 전문점

자료: 통계분류포털(검색일: 2024.4.2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범위와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비교하면 특수분류체계는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분류 중에서 특히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이 해양환경·생태계 보전·복원, 측량·조사, 해양재난 예방, 해양공간자원 보호, 정보 수집·관리 등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 영역을 가장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3-3〉「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범위와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의 연계

해양수산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양수산업 범위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
수산자원의 채취 · 포획 · 양식 · 가공 · 유통과 관련된 산업	4. 수산물 생산업 5. 수산물 가공업 6. 수산물 유통업
해운업, 항만건설 · 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1.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2. 해운항만업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로부터 해양광물을 탐사 · 채집 · 추출 · 제련 · 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 · 장비의 개발 · 운영과 관련된 산업	1.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8.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해양에너지의 개발 · 이용과 관련된 산업	1.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 · 설치 · 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 · 장비의 개발 · 운영과 관련된 산업	3.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 수리업 8.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복원과 관련된 산업	9.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어촌 ·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 · 레저와 관련된 산업	7.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 · 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1.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1.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9.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태풍, 조류 대발생, 조수 및 해양사고 등 해양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9.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일, 파랑,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9.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 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산업	9.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산업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대로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해양산업의 범위는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중에서 수산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면 '해양' 분야와 '수산'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대분류이다. 대분류 단계에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분류 또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면 '해양' 분야와 '수산'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 레저관광업'은 중분류 단계에서 해양레저관광업과 수산레저관광업으로 구분되므로 해양과 수산 분야로 구분된다.

〈표 3-4〉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활용한 해양산업의 범위 설정

코드	대분류	코드	중분류
1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11	해양자원 생산, 공급 및 개발업
		12	해양바이오 제품 제조업
		13	항만 및 해량 교량 건설업
		14	해양수산플랜트 및 구조물 공사업
2	해운항만업	21	해운업
		22	항만업
3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31	선박 건조 및 수리업
		32	해양플랜트, 구조물 건조 및 수리업
		33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업
4	수산물 생산업	41	어로어업
		42	양식어업
		43	어업 관련 서비스업
		44	소금 채취업
5	수산물 가공업	50	수산물 가공업
6	수산물 유통업	61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62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코드	대분류	코드	중분류
7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71	해양레저관광업
		72	수산레저관광업
8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81	해양 기자재 제조업
		82	수산 기자재 제조업
9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91	해양폐기물 처리 및 정화 복원업
		92	해양수산 기자재 도소매업
		93	해양수산 기자재 수리업
		94	해양수산인력 고용 알선 및 공급업
		95	해양수산교육 서비스업
		96	해양수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7	해양수산 금융 및 보험업
		98	해양수산 협회 및 단체
		99	수산물 요리 전문점

주: 수산 분야이므로 제외 소분류 기준으로 '해양', '수산' 구분

자료: 저자 작성

3) 해양수산 신산업의 범위

해양수산부는 법적 개념으로서의 해양수산업 외에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2022.12.27.)에서 해양수산 신산업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해양수산 신산업이란 "산업 생명주기상 ① 태동기·도입기에 해당하거나, ② 신기술·새로운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고성장이 예상되는 해양수산업"을 의미한다. 해양수산 신산업은 크게 "현재 시장규모는 작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즉 '신흥 산업군'과 "전통 해양수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구조, 규모가 재편되는 산업", 즉 '전환·도약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은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을 5대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제시

하였다. 이중에서 해양바이오와 해양에너지 · 자원이 신흥 산업군이라면 친환경 · 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은 전환 · 도약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5대 신산업 분야는 "①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중점육성 분야, ② OECD의 성장 전망, ③ 글로벌시장 선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데, 해양수산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나 타 분야 기술혁신과의 융 · 복합 정도에 따라 신산업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47]

〈표 3-5〉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해양수산 신산업의 범위

구분		주요 내용
전환 · 도약군	① 친환경 · 첨단 선박	선박연료 · 엔진의 탈탄소화 등 친환경선박 전환, 무인운항이 가능한 lv.4 자율운항선박 및 디지털 해양교통시스템 도입
	② 스마트 블루푸드 (smart blue food)	수산 양식업의 디지털 기반 전환 및 수산물 가공공정 자동화 등 전주기 개선, 푸드테크 기반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등
	③ 해양레저관광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상품화, 마리나 · 크루즈 등 인프라 구축 및 대국민 해양관광레저 서비스 향상
신흥 산업군	④ 해양바이오	해양생물 유래 소재 확보 및 사업화 기반 마련, 해양소재를 활용한 식량 · 의약 · 에너지 등 바이오 제품 및 서비스 생산
	⑤ 해양에너지 · 자원	조수, 파도 등 해양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 수소 생산, 광물 · 수자원 등 해양자원 확보 및 활용 고도화

자료: 해양수산부(2022), p.2.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해양산업의 분포 현황

1)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기반한 해양산업 현황 분석 방법

위에서 해양산업의 범위는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중 해양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해양산업의 분포 현황 역시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47) 해양수산부(2022), p.2.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매년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해양수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표본 설계는 층화 추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층화는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중분류(총 29개), 종사자 규모(총 7가지), 시·도 등 총 3단계로 구분되며, 가중치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모수를 추정한다.[48)]

2022년 기준으로 해양수산 사업체는 총 199,567개사, 매출액은 총 244조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앞에서 제시한 대로 해양과 수산 분야로 구분하면, 해양 사업체는 13.0%(25,916개사)이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67.9%(165.7조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따른 '해양' 및 '수산' 사업체 현황

구분	사업체 수(개)	사업체 수(%)	매출액(조원)	매출액(%)
해양	25,916	13.0	165.7	67.9
수산	173,651	87.0	78.3	32.1
합계	199,567	100.0	244.0	100.0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지역별 분포

(1) 사업체 수 및 매출액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해양 사업체 총 25,916개사 중에서 부산이 31.0%(8,032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경남 17.7%(4,594개사), 서울 10.3%(2,663개사), 전남 9.6%(2,486개사), 울산 5.8%(1,502개사)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남해안에 접해 있는 광역지

48) 해양수산부(2020), pp.83~95.

자체(전남, 경남, 부산, 울산)의 사업체 수 비중을 합하면 64.1%로, 전체 해양 사업체의 약 삼분의 이가 남해안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해양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165.7조원 중에서 서울이 69.5조원으로 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확대하면 47.0%로 증가한다. 즉, 우리나라 해양 사업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30.4 조원, 18.4%), 경남(23.1조원, 14.0%), 울산(17.3조원, 10.5%) 순으로 매출액이 높다.

전체 해양 사업체 수의 31.0%를 차지하는 부산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18.4%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서울은 사업체 수 비중은 10.3%이나 전체 매출액의 42.0%를 차지하여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사업체 수는 전체의 20.8%이나 매출액은 47.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과 울산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 지역에서 사업체 수 비중보다 매출액 비중이 더 낮다.[49)]

사업체당 매출액은 서울의 경우 26,128백만원으로 전국 해양 사업체 평균(6,395백만원)의 4.1배이며, 수도권 외 지역의 해양 사업체 평균 매출액(4,281백만원)의 6.1배에 달한다. 수도권의 해양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4,424백만원으로 수도권 외 사업체 평균(4,281백만원)보다 3.4배 높다.

49) 사업체 수 비중 대비 매출액 비중은 서울의 경우 약 4.1배, 울산은 1.8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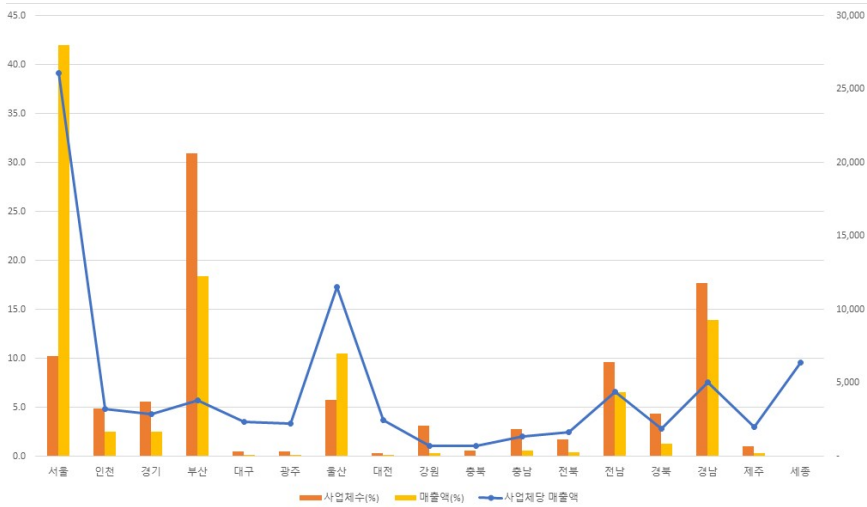
〈표 3-7〉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수, 매출액 및 사업체당 매출액

구분	사업체 수 (개)	사업체 수 (%)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	사업체당 매출액 (백만원)
서울	2,663	10.3	69,566,400	42.0	26,128
인천	1,278	4.9	4,152,223	2.5	3,249
경기	1,460	5.6	4,173,547	2.5	2,859
수도권(소계)	**5,400**	**20.8**	**77,892,170**	**47.0**	**14,424**
부산	8,032	31.0	30,450,034	18.4	3,791
대구	136	0.5	317,715	0.2	2,336
광주	138	0.5	310,839	0.2	2,254
울산	1,502	5.8	17,356,065	10.5	11,558
대전	90	0.3	223,016	0.1	2,488
강원	819	3.2	580,861	0.4	710
충북	148	0.6	108,334	0.1	732
충남	714	2.8	949,477	0.6	1,330
전북	440	1.7	731,775	0.4	1,662
전남	2,486	9.6	10,912,963	6.6	4,390
경북	1,142	4.4	2,179,999	1.3	1,909
경남	4,594	17.7	23,127,769	14.0	5,035
제주	267	1.0	526,764	0.3	1,975
세종	10	0.0	61,866	0.0	6,382
합계(전국)	**25,916**	**100.0**	**165,729,646**	**100.0**	**6,395**
합계 (수도권 제외)	20,516	79.2	87,837,477	53.0	4,281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수, 매출액 및 사업체당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종사자 수

해양 사업체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남(65,348명)과 부산(65,272명)이 각각 21.8%로 가장 높고, 울산 15.4%(46,084명), 서울 13.4%(40,210명)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서울이 1,730백만원으로 2위인 부산(467백만원)보다 3.7배 높다. 수도권의 경우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168백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377백만원)의 3.1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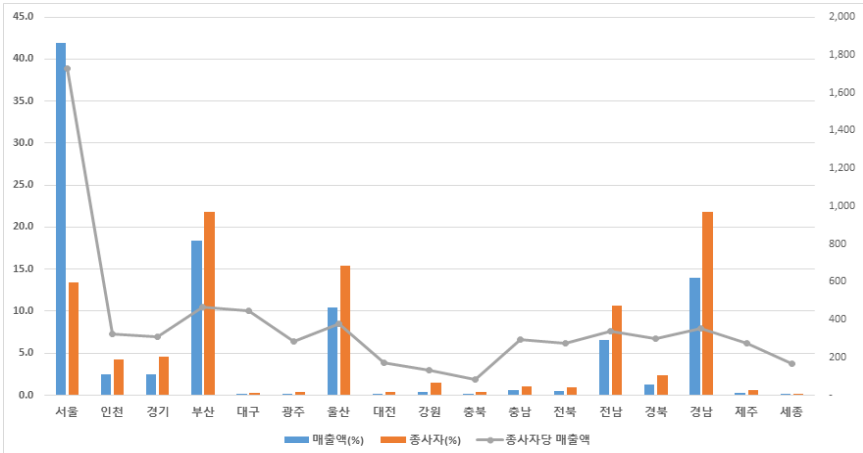
〈표 3-8〉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종사자당 매출액

광역	종사자 수 (명)	종사자 수 (%)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	종사자당 매출액 (백만원)
서울	40,210	13.4	69,566,400	42.0	1,730
인천	12,893	4.3	4,152,223	2.5	322
경기	13,571	4.5	4,173,547	2.5	308
수도권(소계)	**66,674**	**22.2**	**77,892,170**	**47.0**	**1,168**
부산	65,272	21.8	30,450,034	18.4	467
대구	714	0.2	317,715	0.2	445
광주	1,094	0.4	310,839	0.2	284
울산	46,084	15.4	17,356,065	10.5	377
대전	1,298	0.4	223,016	0.1	172
강원	4,466	1.5	580,861	0.4	130
충북	1,271	0.4	108,334	0.1	85
충남	3,251	1.1	949,477	0.6	292
전북	2,675	0.9	731,775	0.4	274
전남	32,107	10.7	10,912,963	6.6	340
경북	7,241	2.4	2,179,999	1.3	301
경남	65,348	21.8	23,127,769	14.0	354
제주	1,919	0.6	526,764	0.3	274
세종	372	0.1	61,866	0.0	166
합계(전국)	299,788	**100.0**	**165,729,646**	**100.0**	553
합계 (수도권 제외)	233,114	77.8	87,837,477	53.0	377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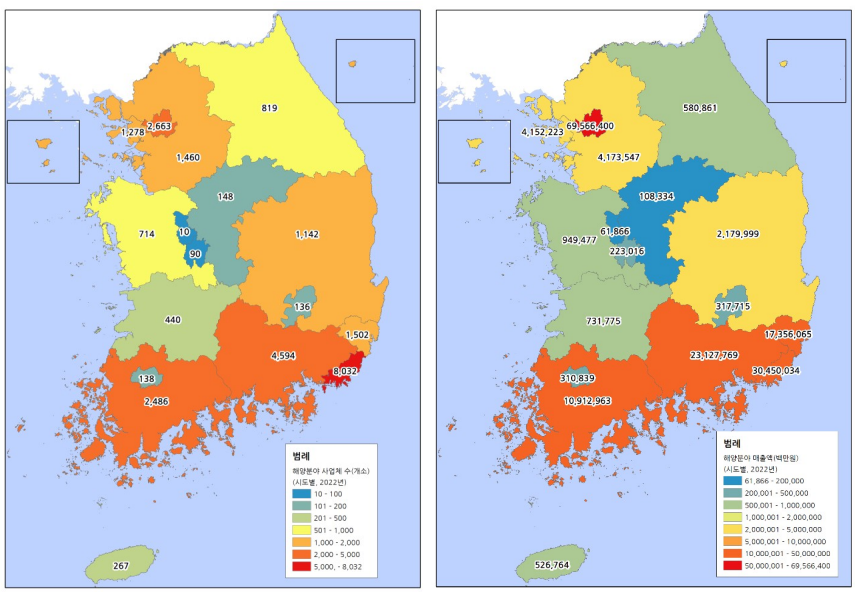
〈그림 3-2〉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종사자당 매출액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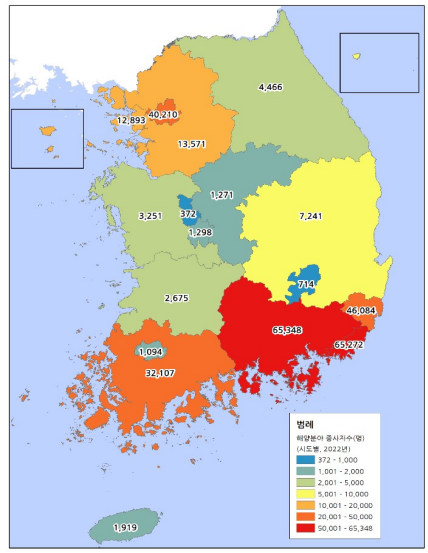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3〉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수(左) 및 매출액(右)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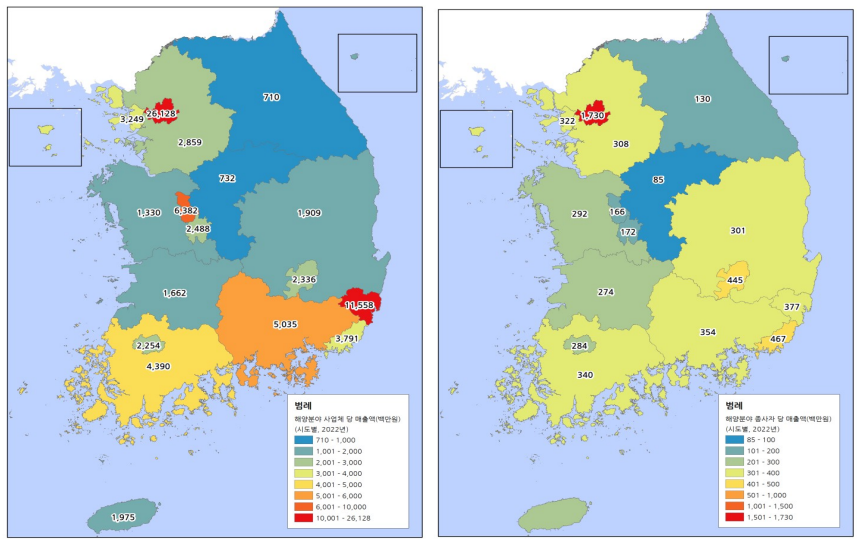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4〉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 종사자 수 현황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5〉 2022년 기준 광역별 해양 사업체당 매출액(左) 및 종사자당 매출액(右) 현황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전국 사업체조사와 비교

2022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이 각각 49.1%와 50.9%이며, 종사자 수는 각각 52.1%와 47.9%로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매출액은 수도권이 58.0%인 데 반해 수도권 외 지역은 41.8%로 수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업체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수도권(1,693.6백만원)이 수도권 외 지역(1,173.6백만원)보다 1.4배 높으며, 종사자당 매출액은 수도권(388백만원)이 수도권 외 지역(304.2백만원)보다 1.3배 높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해양 사업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국 사업체조사에서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9〉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광역별 사업체 수, 매출액 및 사업체당 매출액

구분	사업체 수 (개)	사업체 수 (%)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	사업체당 매출액 (백만원)	종사자 수 (명)	종사자 수 (%)	종사자당 매출액 (백만원)
서울	1,180,025	19.2	2,856,087,130	32.6	2,420	5,795,417	23.0	493
인천	317,133	5.2	376,669,966	4.3	1,188	1,250,203	5.0	301
경기	1,514,951	24.7	1,868,460,782	21.3	1,233	6,103,213	24.2	306
수도권 (소계)	**3,012,109**	**49.1**	**5,101,217,878**	**58.2**	**1,694**	**13,148,833**	**52.1**	**388**
부산	400,565	6.5	394,629,618	4.5	985	1,554,664	6.2	254
대구	279,223	4.5	251,979,654	2.9	902	1,014,987	4.0	248
광주	170,894	2.8	184,069,013	2.1	1,077	675,251	2.7	273
울산	115,784	1.9	369,613,875	4.2	3,192	547,780	2.2	675
대전	164,664	2.7	170,153,233	1.9	1,033	695,570	2.8	245
강원	203,375	3.3	141,135,492	1.6	694	727,557	2.9	194
충북	197,158	3.2	265,658,788	3.0	1,347	838,620	3.3	317
충남	266,577	4.3	467,235,975	5.3	1,753	1,092,389	4.3	428
전북	232,695	3.8	192,535,249	2.2	827	795,273	3.2	242

구분	사업체 수 (개)	사업체 수 (%)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	사업체당 매출액 (백만원)	종사자 수 (명)	종사자 수 (%)	종사자당 매출액 (백만원)
전남	236,470	3.9	326,484,391	3.7	1,381	862,357	3.4	379
경북	333,276	5.4	384,024,569	4.4	1,152	1,255,587	5.0	306
경남	397,699	6.5	412,800,643	4.7	1,038	1,529,668	6.1	270
제주	96,334	1.6	63,727,132	0.7	662	320,419	1.3	199
세종	33,076	0.5	46,719,861	0.5	1,413	158,168	0.6	295
합계 (전국)	**6,139,899**	**100.0**	**8,771,985,371**	**100.0**	**1,429**	**25,217,123**	**100.0**	**348**
합계 (수도권 제외)	3,127,790	50.9	3,670,767,493	41.8	1,174	12,068,290	47.9	304

자료: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2022년 기준 해양 사업체의 총 매출액은 165.7조원으로 동일 기간 전국사업체조사의 총 매출액 8,772조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당 매출액을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해양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당 매출액(14,424백만원)이 전국사업체조사의 수도권 지역의 사업체(1,694백만원)보다 8.5배 높았다. 수도권 외 지역의 해양 사업체(4,281백만원) 역시 전국사업체조사(1,174백만원) 대비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사자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 지역 해양 사업체(1,168백만원)는 전국사업체조사의 수도권 지역 사업체(388백만원)보다 3배 높은 반면, 수도권 외 지역 해양 사업체(377백만원)는 전국사업체조사 수도권 외 지역(304백만원)보다 1.2배 높아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할 경우 차이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3-10〉 2022년 기준 해양 사업체와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당 매출액 및 종사자당 매출액 비교

구분	해양 사업체(해양수산업 통계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수도권 외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14,424	4,281	1,694	1,174
종사자당 매출액(백만원)	1,168	377	388	304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업종별(대분류별) 분포

(1) 업종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 중 해양 분야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별로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해운항만업이 31.1%(8,070개사)로 가장 비중이 높고,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30.6%(7,932개사), 해양 관련 서비스업이 25.7%(6,670개사)로 뒤를 잇고 있다. 이를 합하면 전체 해양 사업체 수의 87.5%에 해당한다. 반면에 해양레저관광업, 해양 기자재 제조업,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은 각각 5.3%, 4.7%, 2.5%로 사업체 수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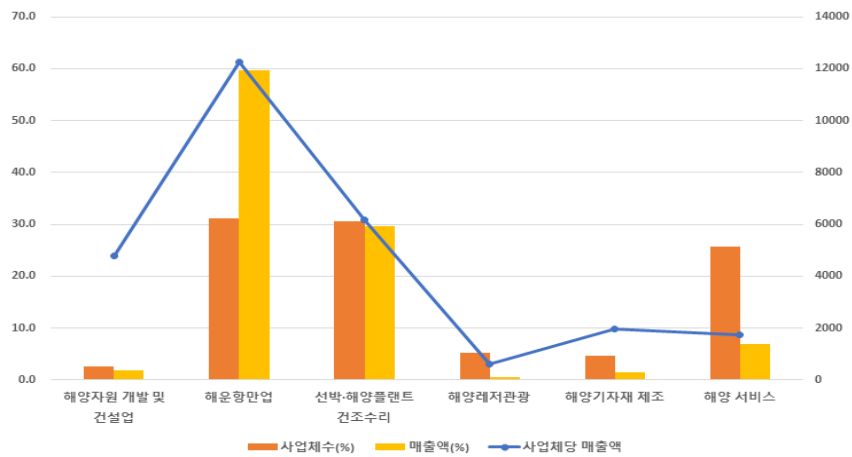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해운항만업이 98.8조원으로 전체 해양 사업체 매출액의 5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두 번째로 매출액이 많은 선박·해양 플랜트 건조·수리업(49조원, 29.8%)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한편, 사업체 수 기준으로 25.7%를 차지하는 해양 관련 서비스업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6.9%로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외에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양 기자재 제조업, 해양레저관광업은 각각 2% 미만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업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해운항만업이 12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61.9억원,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이 47.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양레저관광업은 6.2억원으로 해양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인 64.0억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6〉 2022년 기준 업종별 사업체 수, 매출액 및 사업체당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업종별 종사자 수 및 매출액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과 해운항만업이 거의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42.8%(128,402명)과 30.5%(61,385명)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해양 관련 서비스업이 18.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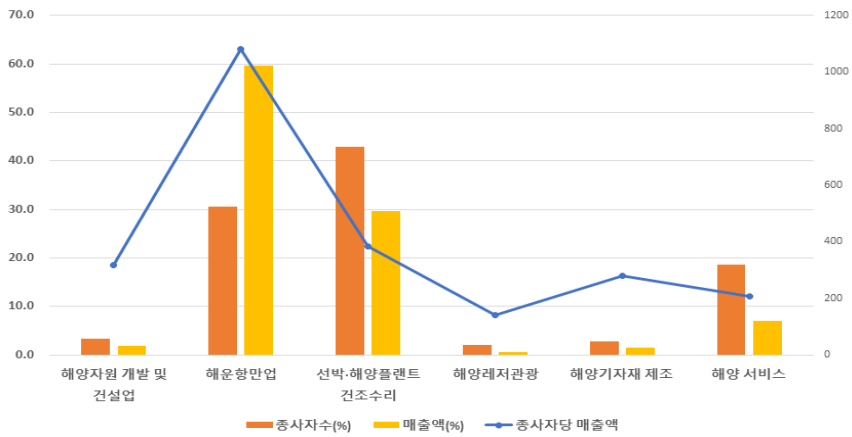
사업체당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평균 16.2명으로 가장 많고,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이 15.2명, 해운항만업이 11.3명 순이다. 해양레저관광업은 4.4명으로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가장 적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해운항만업이 10.8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2위를 차지한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의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3.2억원)의 3.4배에 해당하며, 1인당 매출액이 가장 적은 해양레저

관광업(1.4억원)과 비교하면 7.6배 수준이다. 그러나 사업체당 매출액에 비해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대분류별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다.

〈그림 3-7〉 2022년 기준 업종별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종사자당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1〉 2022년 기준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

대분류	사업체 수 (개)	사업체 수 (%)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	사업체당 매출액 (백만원)	종사자 수 (명)	종사자 수 (%)	사업체당 종사자 수 (명)	종사자당 매출액 (백만원)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652	2.5	3,125,439	1.9	4,795	9,876	3.3	15.2	316
해운항만업	8,070	31.1	98,794,773	59.6	12,242	91,385	30.5	11.3	1,081
선박 · 해양 플랜트 건조 · 수리업	7,932	30.6	49,062,240	29.6	6,185	128,402	42.8	16.2	382
해양레저 관광업	1,368	5.3	852,535	0.5	623	6,004	2.0	4.4	142
해양기자재 제조업	1,224	4.7	2,379,040	1.4	1,944	8,495	2.8	6.9	280
해양 관련 서비스업	6,670	25.7	11,515,620	6.9	1,726	55,627	18.6	8.3	207
합계	25,916	100.0	165,729,646	100.0	6,395	299,788	100.0	11.6	553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지역별 및 업종별 사업체 수

업종별 해양 사업체의 분포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해운항만업과 해양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남, 부산, 전남, 울산 등 남해안 지역은 선박·해양 플랜트 건조·수리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해양 사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 이 외에도 해운항만업과 해양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표 3-12〉 지역별 및 업종별 해양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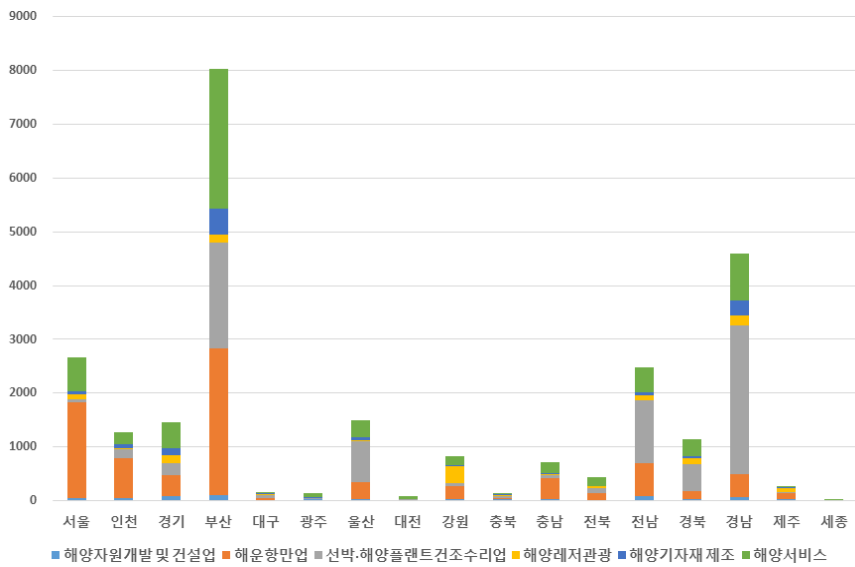
단위: 개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운항만업	선박·해양 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레저 관광업	해양기자재 제조업	해양 관련 서비스업	합계
서울	55	1771	57	91	60	629	2,663
인천	44	736	172	28	63	235	1,278
경기	83	397	211	152	135	482	1,460
부산	108	2,714	1,970	156	492	2,593	8,032
대구	5	39	60	18	11	4	136
광주	19	16	7	12	5	78	138
울산	29	318	757	25	43	329	1,502
대전	6	1	11	7	3	61	90
강원	22	249	60	315	13	160	819
충북	22	31	30	18	21	26	148
충남	26	391	50	30	5	213	714
전북	15	119	96	40	4	167	440
전남	81	615	1,163	99	65	464	2,486
경북	34	145	507	103	34	319	1,142
경남	72	421	2,770	189	263	880	4,594
제주	30	108	11	86	8	24	267
세종	2	-	-	-	-	8	10
합계	**652**	**8,070**	**7932**	**1,368**	**1,224**	**6,670**	**25,916**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8〉 지역별 및 업종별 해양 사업체 수

단위: 개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지역별 및 업종별 매출액

앞에서 지역별 해양 사업체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전체 매출액의 42.0%로 1위를 차지하였고, 부산은 18.4%를 차지하였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해양 사업체 전체 매출액의 4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를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 해운항만업의 매출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해양 관련 서비스업 역시 서울과 부산의 매출액 비중이 높지만 해운항만업과 비교하면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경남, 울산, 전남 지역은 각각 선박·해양 플랜트 건조·수리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지역별 및 업종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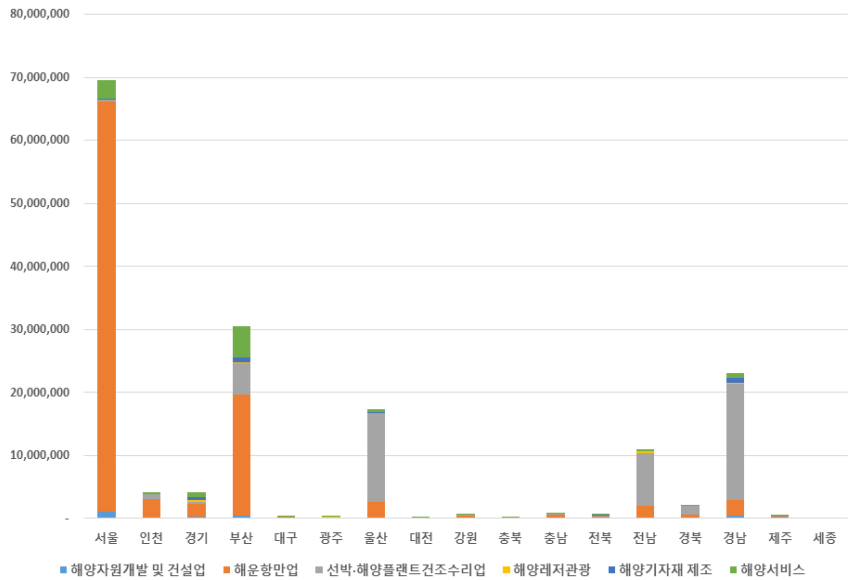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운항만업	선박 · 해양 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레저 관광업	해양기자재 제조업	해양 관련 서비스업	합계
서울	1,085,045	65,013,578	298,730	48,802	12,2967	2,997,277	69,566,400
인천	177,005	2,918,200	774,942	15,307	29,579	237,190	4,152,223
경기	352,309	1,906,886	388,978	274,690	516,371	734,313	4,173,547
부산	383,716	19,285,706	5,003,414	59,715	753,655	4,963,828	30,450,034
대구	1,800	231,914	27,342	46,172	5,964	4,523	317,715
광주	41,721	158,120	16,335	2,607	1,389	90,669	310,839
울산	67,952	2,582,770	14,059,088	4,707	122,534	519,015	17,356,065
대전	981	192	1,115	2,033	4,986	213,710	223,016
강원	25,596	491,813	10,841	25,262	1,489	25,861	580,861
충북	46,457	4,511	16,177	3,776	31,501	5,912	108,334
충남	49,447	605,475	33,900	4,025	742	255,889	949,477
전북	30,802	337,361	147,558	5,505	63,298	147,252	731,775
전남	150,013	1,785,890	8,506,235	202,037	29,211	239,576	10,912,963
경북	36,878	626,187	1,339,143	16,563	13,702	147,526	2,179,999
경남	407,219	2,598,081	18,437,294	125,455	680,881	878,838	23,127,769
제주	246,222	248,088	1,149	15,881	770	14,653	526,764
세종	22,278	-	-	-	-	39,588	61,866
합계	3,125,439	98,794,773	49,062,240	852,535	2,379,040	11,515,620	165,729,646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9〉 지역별 및 업종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절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제1절에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의 범위를 살펴보고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해양산업의 분포 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 절에서는 해양모태펀드의 투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벤처캐피털 투자 등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해양모태펀드 투자의 주요 특성을 도출하였다.

1. 자료 개요

이 연구에서는 해양모태펀드 투자 실적 중에서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주목적 분야의 투자 실적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해양모태펀드의 투자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모태펀드 투자 현황과 벤처캐피털 투자, 해양 및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실적 등을 비교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3-14〉 자료 구축 개요

구분	기간	비고
해양모태펀드	2020~2024	주목적 투자(44개 기업, 총 613.5억원)
한국모태펀드	2020~2023	업력별, 지역별 신규투자 실적(한국벤처투자 제공)
벤처캐피털 투자	2020~2022	한국벤처캐피털협회(2023)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2020~2024	한국벤처캐피털협회의 해양수산 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DB에서 '해양' 기업만 추출 (156개 기업, 총 4,221.3억원)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2020~2024	한국벤처캐피털협회의 해양수산 투자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DB에서 '수산' 기업만 추출 (77개 기업, 총 2309.8억원)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1) 연도별 투자 현황

2020년부터 2024년 11월 기준으로 해양모태펀드는 44개 기업에 총 613.5억원을 투자하였다.[50] 연도별로는 2020년 71억원에서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2.2배인 155.5억원이 투자되었다.

50) 동일 기업이 여러 건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기업 수 산정 시 중복을 제거함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2020~2024년 평균적으로 기업당 13.9억원이 투자되었다. 이는 동일 기간 벤처캐피털 투자, 해양 및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의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의 약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51)]

〈표 3-15〉 2020~2024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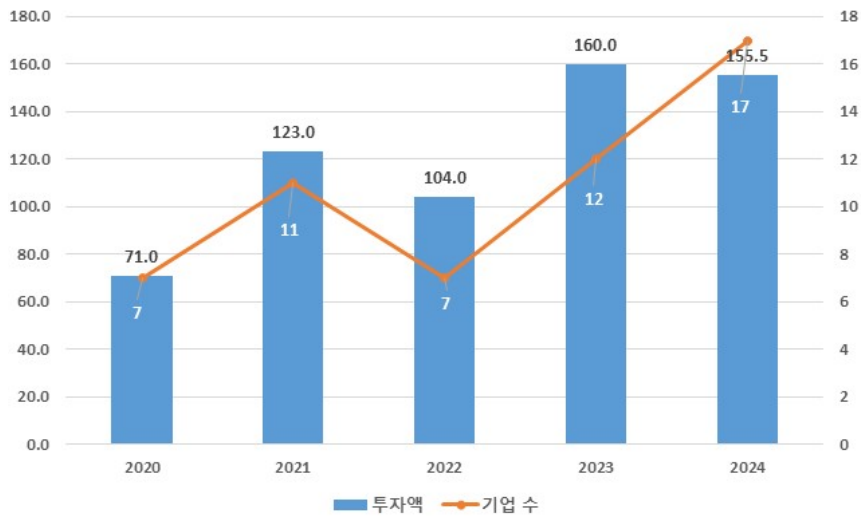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해양 모태펀드	투자액 (억원)	71.0	123.0	104.0	160.0	155.5	613.5
	기업 수 (개)	7	11	7	12	17	44
	기업당 평균(억원)	10.1	11.2	14.9	13.3	9.1	13.9
벤처캐피털 투자	투자액 (억원)	43,045	76,802	67,640	·	·	·
	기업 수 (개)	2,130	2,438	2,474	·	·	·
	기업당 평균(억원)	20.2	31.5	27.3	·	·	·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투자액 (억원)	800.4	798.6	597.8	854.2	1,170.3	4,221.3
	기업 수 (개)	49	36	35	41	50	156
	기업당 평균(억원)	16.3	22.2	17.1	20.8	23.4	27.1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투자액 (억원)	613.5	711.0	719.1	177.5	88.7	2,309.8
	기업 수 (개)	31	19	29	14	6	77
	기업당 평균(억원)	19.8	37.4	24.8	12.7	14.8	30.0

자료: 해양모태펀드: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2023), p.58,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및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1) 2020~2024년 해양모태펀드의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13.9억원)은 동일 기간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의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27.1억원)의 51.5%,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30.0억원)의 46.5%에 해당함. 또한, 2022년 기준 벤처캐피털 투자의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이 27.3억원인 데 반해 해양모태펀드는 14.9억원으로 54.3% 수준임

〈그림 3-10〉 해양모태펀드 연도별 투자금액 및 투자 기업 수

단위: 억 원, 개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업력별 투자 현황

(1) 업력별 투자 현황

창업 후 투자를 유치한 시점까지의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업력을 각각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업력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52], 중기 기업과 후기 기업의 투자 유치 금액은 각각 297억원(48.4%)과 279.5억원(45.6%)으로 유사한 반면, 초기 기업은 총 37억원(6%)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 금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투자기업 수 역시 중기 기업이 50개사, 후기 기업 20개사인 데 반해, 초기 기업은 5개사로 초기 기업 수가 가장 적었다.

52) 초기 기업은 창업 후 업력이 3년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 기업은 3년 초과에서 7년 이하, 후기 기업은 7년 초과 기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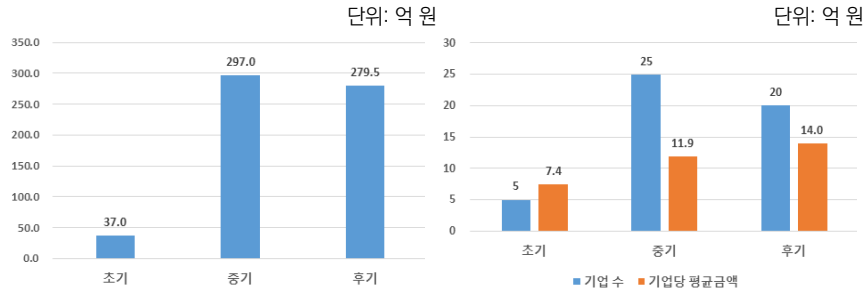
한편,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은 초기 기업의 경우 7.4억원, 중기 기업 11.9억원, 후기 기업 14.0억원으로 업력이 증가할수록 평균 투자 유치금액 역시 증가하였다.[53]

〈표 3-16〉 2020~2024년 해양모태펀드 업력별 투자 현황

업력	투자액 (억원)	기업 수* (개)	건수	기업당 평균금액** (억원)
초기(~3년 이하)	37.0	5	6	7.4
중기(3년 초과~7년 이하)	297.0	25	34	11.9
후기(7년 초과~)	279.5	20	26	14.0
합계	**613.5**	**44**	**66**	**13.9**

* 중복 제거 시 기업 수는 44개, 중복 포함 시 50개임
**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 산정 시 기업 중복 제거함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그림 3-11〉 해양모태펀드 업력별 총 투자 유치 금액(左) 및 기업별 평균 투자 유치 금액(右)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2) 업력별 및 연도별 투자금액

업력별 투자금액을 연도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2021년도에 중기 기업의 투자 유치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 투자금액이 감소하였던 2022년에는 중기와 후기 기업에만 투자가 이루어졌다.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23년부터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3) 기업당 평균 투자 유치 금액 산정 시 기업 수는 중복을 제거함

〈표 3-17〉 업력별 연도별 투자 유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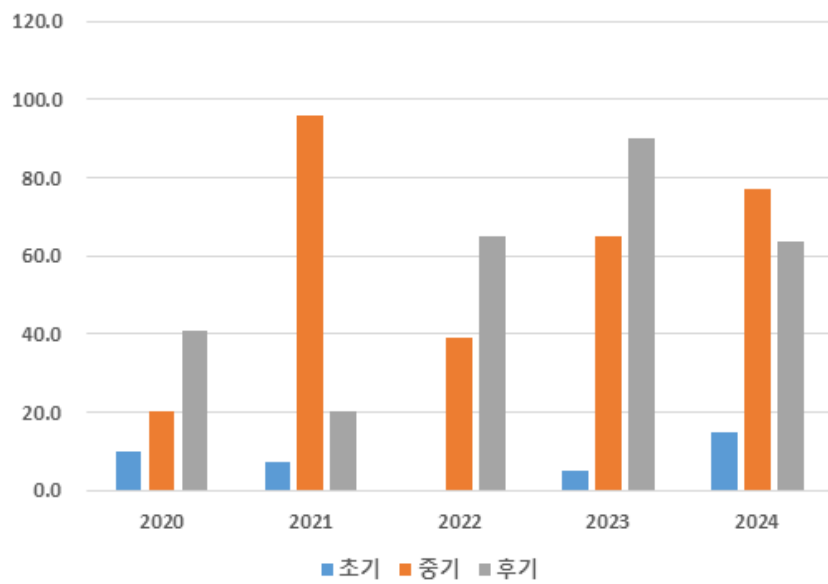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업력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초기	10.0	7.0	0.0	5.0	15.0	37.0
중기	20.0	96.0	39.0	65.0	77.0	297.0
후기	41.0	20.0	65.0	90.0	63.5	279.5
합계	**71.0**	**123.0**	**104.0**	**160.0**	**155.5**	**613.5**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그림 3-12〉 업력별 연도별 투자 유치 금액

단위: 억 원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해양모태펀드의 업력별 투자 현황을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해양모태펀드는 초기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4년 기준 해양모태펀드는 초기 기업 비중이 6%로 가장 낮고 중기 및 후기 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모태펀드의 경우 2020~2023년 기준 초기 기업의

비중이 30.8%이며, 중기 및 후기 기업은 각각 35.3%, 33.3%로 업력별 차이가 크지 않다. 벤처캐피털 투자 역시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기 기업 비중이 40.4%로 가장 비중이 높으나, 초기 기업도 29.6%를 차지하여 해양모태펀드에 비해 업력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18〉 해양모태펀드와 벤처캐피털 투자의 업력별 및 연도별 투자 금액 비교

단위: %

	업력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해양모태펀드	초기	14.1	5.7	0.0	3.1	9.6	6.0
	중기	28.2	78.0	37.5	40.6	49.5	48.4
	후기	57.7	16.3	62.5	56.3	40.8	45.6
한국모태펀드	초기	35.4	25.8	32.4	27.6	·	30.8
	중기	37.5	44.2	42.2	38.4	·	35.3
	후기	27.1	30.0	25.4	34.1	·	33.9
벤처캐피털 투자	초기	30.7	24.2	29.6	·	·	·
	중기	40.1	45.3	40.4	·	·	·
	후기	29.2	30.5	30.0	·	·	·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초기	31.2	15.1	10.5	10.2	3.9	13.4
	중기	29.3	46.2	17.3	37.8	48.6	37.6
	후기	39.5	38.7	72.2	52.0	47.4	49.0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초기	32.4	19.8	5.2	27.8	9.6	22.8
	중기	27.0	73.2	87.1	12.1	13.5	56.0
	후기	40.7	7.0	7.7	60.1	76.9	21.2

자료: 해양모태펀드: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https://www.kvic.or.kr/open/open4_1),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2023), p.63,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및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업력별 및 연도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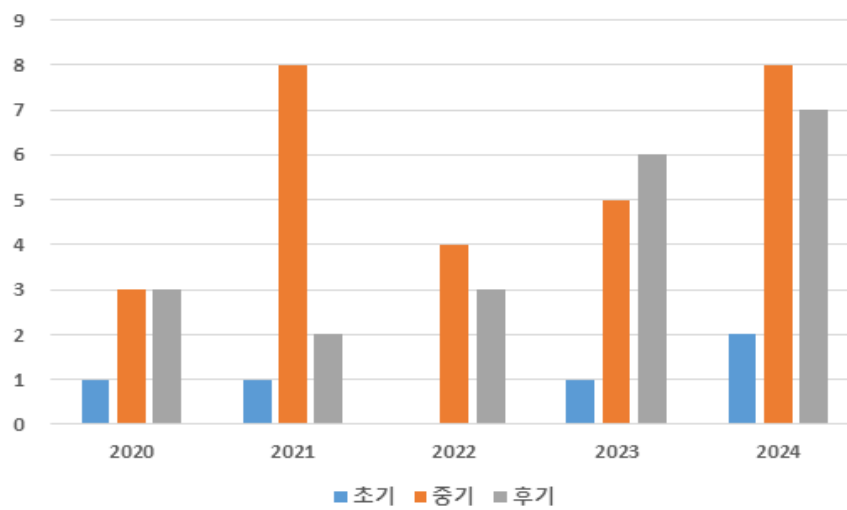
업력별 및 연도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을 피투자기업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2024년 기준으로 중기 기업 수가 가장 많고 후기 및 초기 기업 순으로 기업 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업력별 및 연도별 투자금액 현황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표 3-19〉 업력별 및 연도별 기업 수

업력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초기	1	1	0	1	2	5
중기	3	8	4	5	8	25
후기	3	2	3	6	7	20
합계	**7**	**11**	**7**	**12**	**17**	**50**

* 기업 수 합계 시 중복 포함함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그림 3-13〉 업력별 및 연도별 기업 수



* 기업 수 합계 시 중복 포함함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해양모태펀드의 피투자기업 수를 벤처캐피털 투자 자료와 비교해보면, 벤처캐피털투자의 피투자 기업 수는 해양모태펀드와는 대조적으로 초기, 중기 및 후기 기업 순으로 비중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퍼널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3-20〉 해양모태펀드와 벤처캐피털투자 피투자 기업 수 비교

단위: %

	업력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해양모태펀드	초기	14.3	9.1	0.0	8.3	11.8	10.0
	중기	42.9	72.7	57.1	41.7	47.1	50.0
	후기	42.9	18.2	42.9	50.0	41.2	40.0
벤처캐피털 투자	초기	46.4	39.4	45.3	·	·	·
	중기	35.7	38.0	34.5	·	·	·
	후기	17.9	22.7	20.2	·	·	·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초기	44.9	27.8	34.3	22.0	17.3	32.5
	중기	28.6	38.9	34.3	36.6	40.4	31.9
	후기	26.5	33.3	31.4	41.5	42.3	35.6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초기	32.3	30.0	31.0	64.3	50.0	41.9
	중기	29.0	50.0	51.7	28.6	16.7	35.5
	후기	38.7	20.0	17.2	7.1	33.3	22.6

자료: 해양모태펀드: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2023), p.64,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및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업력별 건당 투자 금액

2020~2024년 기준 해양모태펀드의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9.3억원으로 2020년 기준 벤처캐피털투자 건당 평균 금액인 12.8억원의 약 72.8% 수준이다. 2020~2024년 기준 해양 및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는 건당 평균 투자금액이 각각 10.4억원 및 11.8억원으로 해양모태펀드보다 다소 높다.

업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해양모태펀드의 투자 건당 평균 금액은 초기 6.2억원, 중기 8.7억원, 후기 10.8억원으로 업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캐피털 투자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에서 초기(평균 5.5억원)에서 중기(평균 16억원)로 업력이 증가할 때 건당 평균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표 3-21〉 업력별 건당 투자금액

	업력	투자액(억원)	투자 건수	건당 평균금액(억원)
해양모태펀드 (2020~2024)	초기	37.0	6	6.2
	중기	297.0	34	8.7
	후기	279.5	26	10.8
	합계	**613.5**	**66**	**9.3**
벤처캐피털 투자 (2022년 기준)	초기	20,050.0	2,041	9.8
	중기	27,305.0	2,037	13.4
	후기	20,285.0	1,208	16.8
	합계	**67,640.0**	**5,286**	**12.8**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2020~2024)	초기	566.3	99	5.7
	중기	1,598.7	168	9.5
	후기	2,056.3	139	14.8
	합계	**4,221.3**	**406**	**10.4**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2020~2024)	초기	434.2	79	5.5
	중기	1,345.7	84	16.0
	후기	529.9	33	16.1
	합계	**2,309.8**	**196**	**11.8**

자료: 해양모태펀드: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2023), p.80,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및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건당 투자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2020~2024년 기준 해양모태펀드는 전체 투자 건수의 약 삼분의 이가 5억원~15억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3억원 이하의 소액 투자나 20억원 이상 등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없다. 반면에 2022년 기준 벤처캐피털투자의 경우 5억원~15억원이 전체의 42.5%로 해양모태펀드보다는 비중이 작았다. 또한, 3억원 이하는 20.1%, 20억원 이상은 21.3%였으며, 50억원 이상의 투자도 4.2%에 달하는 등 해양모태펀드에 비해 투자금액의 범위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역시 1억원 이하부터 100억원 초과 등 벤처캐피털 투자와 유사하게 건당 투자금액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였다.

〈표 3-22〉 건당 투자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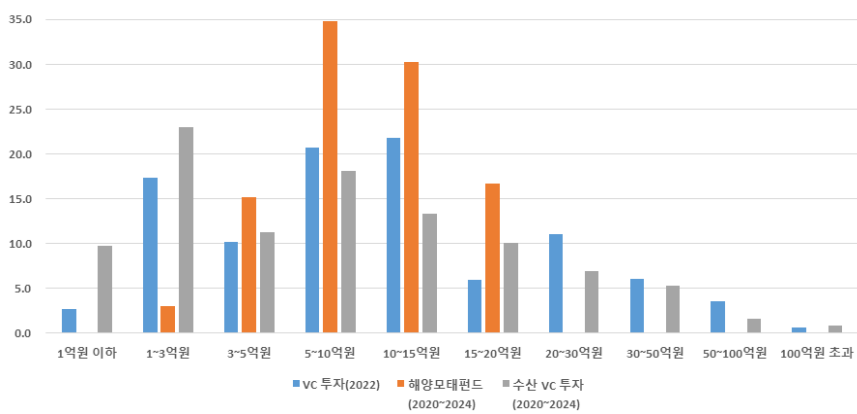
단위: %

투자금액	벤처캐피털 투자 (2022)	해양모태펀드 (2020~2024)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2020~2024)
1억원 이하	2.7	0.0	9.7
1~3억원	17.4	3.0	23.0
3~5억원	10.2	15.2	11.3
5~10억원	20.7	34.8	18.1
10~15억원	21.8	30.3	13.3
15~20억원	5.9	16.7	10.1
20~30억원	11.0	0.0	6.9
30~50억원	6.1	0.0	5.2
50~100억원	3.6	0.0	1.6
100억원 초과	0.6	0.0	0.8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2023), p.80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율 산출, 해양모태펀드: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4〉 건당 투자금액 분포

단위: %



자료: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2023), p.80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율 산출, 해양모태펀드: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지역별 투자 현황

지역별 해양모태펀드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2024년 기준 서울에 30.6%(총 188억원)가 투자되었다. 2022년 이후로 서울은 감소하였으나 경기 지역의 투자는 반대로 증가하여 수도권의 투자 비율은 총 50.7%(311억원)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15.1%), 대전(11.2%), 전남(6.7%)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 지자체가 5% 미만으로 낮았다.

한편, 한국모태펀드의 경우 서울이 매년 5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약 70%로 증가하였다. 벤처캐피털 투자의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50%와 70%를 초과하여 한국모태펀드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3-23〉 지역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

단위: %

	광역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해양모태펀드	서울	57.7	44.7	57.7	9.4	10.9	30.6
	인천	0.0	0.0	0.0	0.0	8.4	2.1
	경기	21.1	0.0	9.6	25.0	28.9	17.9
	수도권	**78.9**	**44.7**	**67.3**	**34.4**	**48.2**	**50.7**
	부산	7.0	8.1	14.4	25.0	14.5	15.1
	대구	0.0	5.7	0.0	0.0	0.0	1.1
	울산	0.0	12.2	0.0	3.1	3.9	4.2
	대전	0.0	0.0	14.4	25.0	9.0	11.2
	강원	0.0	8.1	0.0	0.0	0.0	1.6
	충남	0.0	0.0	0.0	6.3	0.0	1.6
	전남	14.1	17.1	0.0	0.0	6.4	6.7
	경북	0.0	0.0	0.0	0.0	8.4	2.1
	경남	0.0	0.0	3.8	6.3	0.0	2.3
	제주	0.0	4.1	0.0	0.0	0.0	0.8
	세종	0.0	0.0	0.0	0.0	9.6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광역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한국모태펀드	서울	47.9	48.9	50.9	49.3	·	·
	인천	2.7	2.3	1.2	2.1	·	·
	경기	18.5	20.1	18.2	17.7	·	·
	수도권	**69.0**	**71.2**	**70.3**	**69.1**	·	·
벤처캐피털 투자	서울	50.7	56.3	55.4	·	·	·
	인천	1.8	1.8	1.1	·	·	·
	경기	19.5	17.0	16.7	·	·	·
	수도권	**72.0**	**75.1**	**73.2**	·	·	·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서울	38.5	28.0	24.0	13.5	21.8	24.2
	인천	9.9	0.6	0.8	4.7	10.3	6.3
	경기	7.5	2.5	5.7	5.6	17.0	8.7
	수도권	**55.9**	**31.1**	**30.5**	**23.7**	**49.0**	**39.2**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서울	32.1	34.8	28.3	4.6	46.8	32.9
	인천	0.3	0.5	0.0	7.3	4.5	0.8
	경기	5.8	42.2	52.1	65.7	31.7	32.4
	수도권	**38.1**	**77.5**	**80.4**	**77.6**	**83.1**	**66.1**

자료: 해양모태펀드: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https://www.kvic.or.kr/open/open4_1),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2023), p.65,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및 수산 벤처캐피털 투자: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수도권의 투자 유치금액 비중을 단순히 비교하면 한국모태펀드나 벤처캐피털 투자가 해양모태펀드의 경우보다 더 높지만, 수도권의 사업체 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해양모태펀드의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해양 사업체 수 비중은 20.8%인데 해양모태펀드는 50.7%가 투자된 반면, 한국모태펀드나 벤처캐피털 투자의 경우 수도권의 사업체 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라 49.1%인데 투자 비중은 70%를 다소 상회하고 있다.

〈표 3-24〉 지역별 해양 사업체 분포 및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광역	해양 사업체(해양수산업 통계조사)				해양모태펀드	
	사업체 수 (개)	사업체 수 (%)	매출액 (억원)	매출액 (%)	투자액 (억원)	투자액 (%)
서울	2,663	10.3	695,664	42.0	188	30.6
인천	1,278	4.9	41,522	2.5	13	2.1
경기	1,460	5.6	41,735	2.5	110	17.9
수도권(소계)	**5,400**	**20.8**	**778,922**	**47.0**	**311**	**50.7**
부산	8,032	31.0	304,500	18.4	93	15.1
대구	136	0.5	3,177	0.2	7	1.1
광주	138	0.5	3,108	0.2	-	0.0
울산	1,502	5.8	173,561	10.5	26	4.2
대전	90	0.3	2,230	0.1	69	11.2
강원	819	3.2	5,809	0.4	10	1.6
충북	148	0.6	1,083	0.1	-	0.0
충남	714	2.8	9,495	0.6	10	1.6
전북	440	1.7	7,318	0.4	-	0.0
전남	2,486	9.6	109,130	6.6	41	6.7
경북	1,142	4.4	21,800	1.3	13	2.1
경남	4,594	17.7	231,278	14.0	14	2.3
제주	267	1.0	5,268	0.3	5	0.8
세종	10	0.0	619	0.0	15	2.4
합계(전국)	**25,916**	**100.0**	**1,657,296**	**100.0**	**613**	**100.0**

자료: 2022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자료 및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4) 업종별(중분류별) 투자 현황

(1) 업종별 투자 현황

업종별[54]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 기자재 제조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41.9%(256.9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 16.4%, 해양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분야 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레저 분야는 0.8%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기업당 투자 유치 금액은 선박 건조·수리업이나 해운업 등 피투자기업 수가 적은 분야가 해양 기자재 제조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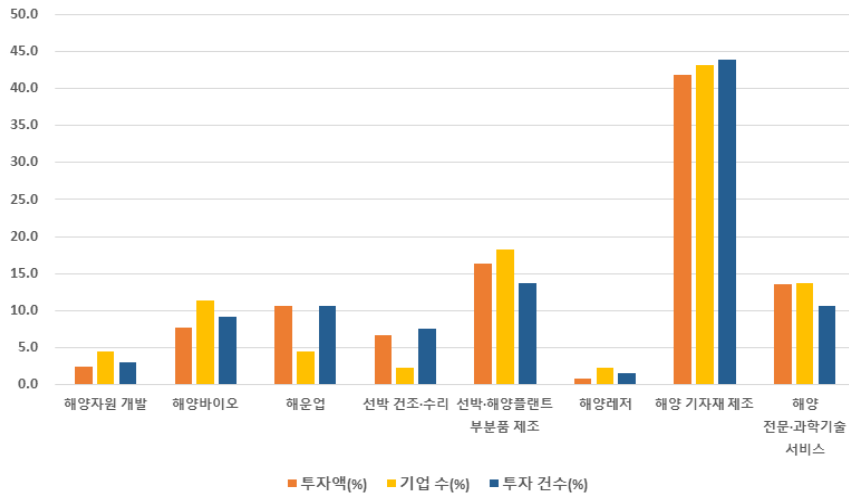
〈표 3-25〉 2020~2024년 업종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중분류	투자액 (억원)	투자액 (%)	기업 수 (개)	기업 수 (%)	기업당 투자액 (억원)
해양자원 개발	15.0	2.4	2	4.5	7.5
해양바이오	47.0	7.7	5	11.4	9.4
해운업	65.0	10.6	2	4.5	32.5
선박 건조·수리	41.0	6.7	1	2.3	41.0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	100.5	16.4	8	18.2	12.6
해양레저	5.0	0.8	1	2.3	5.0
해양 기자재 제조	256.9	41.9	19	43.2	13.5
해양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83.0	13.5	6	13.6	13.8
합계	613.5	100.0	44	100.0	13.9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54)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함

〈그림 3-15〉 2020~2024년 업종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2) 지역별 및 업종별 투자 현황

업종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을 지역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서울은 해양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해운업, 해양바이오, 해양 기자재 제조 등의 순으로 투자금액이 많았고, 경기는 해양 기자재 제조, 선박·해양 플랜트 부분품 제조, 해양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선박·해양 플랜트 부분품 제조, 해양 기자재 제조. 대전은 해양 기자재 제조의 비중이 높았다.

〈표 3-26〉 2020~2024년 업종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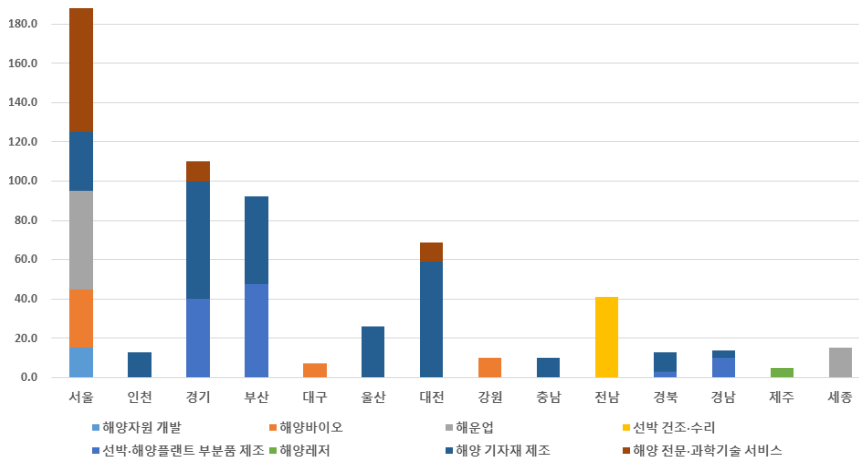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광역	해양 자원개발	해양 바이오	해운업	선박 건조 · 수리	선박 · 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	해양 레저	해양 기자재 제조	해양 전문 · 과학 기술 서비스	합계
서울	15.0	30.0	50.0	·	·	·	30.0	63.0	188.0
인천	·	·	·	·	·	·	13.0	·	13.0
경기	·	·	·	·	40.0	·	60.0	10.0	110.0
부산	·	·	·	·	47.5	·	45.0	·	92.5
대구	·	7.0	·	·	·	·	·	·	7.0
울산	·	·	·	·	·	·	26.0	·	26.0
대전	·	·	·	·	·	·	58.9	10.0	68.9
강원	·	10.0	·	·	·	·	·	·	10.0
충남		·	·	·	·	·	10.0	·	10.0
전남	·	·	·	41.0	·	·	·	·	41.0
경북	·	·	·	·	3.0	·	10.0	·	13.0
경남	·	·	·	·	10.0	·	4.0	·	14.0
제주	·	·	·	·	·	5.0	·	·	5.0
세종	·	·	15.0	·	·	·	·	·	15.0
합계	15.0	47.0	65.0	41.0	100.5	5.0	256.9	83.0	613.5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그림 3-16〉 2020~2024년 업종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

단위: %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직성

해양모태펀드는 현재까지 총 투자 규모(613.5억원, 44개 기업)가 크지 않으므로 지역별 및 업종별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0~2024년 기준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 실적을 참고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서울은 해양바이오, 해양자원 개발(에너지), 해양 기자재 제조, 해운업, 해양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순이며, 경기와 인천은 둘 다 해양 기자재 제조, 선박·해양 플랜트 부분품 제조, 해양바이오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업종별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도권에서 주로 투자된 업종은 해양모태펀드와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가 서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27〉 2020~2024년 지역별 및 업종별 해양 벤처캐피털 투자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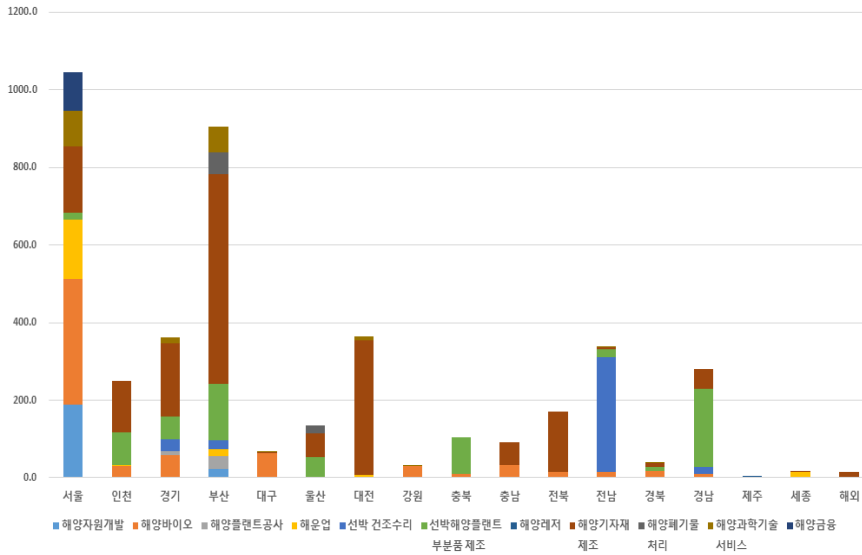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해양 자원 개발	해양 바이오	해양 플랜트 공사	해운업	선박 건조 수리	선박해양 플랜트 부분품 제조	해양 레저	해양 기자재 제조	해양 폐기물 처리	해양 과학기술 서비스	해양 금융	합계
서울	187.5	324.1	·	152.6	·	19.7	·	170.1	·	91.1	100.0	1,045.2
인천	·	30.0	·	2.0	·	85.0	·	132.4	·	·	·	249.4
경기	·	59.1	10.0	·	30.0	60.0	·	187.6	·	14.1	·	360.7
부산	23.0	1.0	31.0	18.0	25.0	144.8	·	540.0	55.0	67.0	·	904.8
대구	·	64.0	·	·	·	·	·	2.9	·	1.0	·	68.0
울산	·	·	·	·	2.0	51.0	·	62.3	20.0	·	·	135.3
대전	·	3.5	·	3.5	·	0.5	·	348.0	·	10.0	·	365.5
강원	·	31.0	·	·	·	·	·	·	·	1.0	·	32.0
충북	·	10.0	·	·	·	95.0	·	·	·	·	·	105.0
충남	·	32.2	·	1.0	·	·	·	58.2	·	·	·	91.4
전북	·	15.8	·	·	·	·	·	155.0	·	·	·	170.8
전남	·	15.0	·	·	295.5	20.0	·	4.7	·	1.5	·	336.8
경북	·	18.5	·	·	·	8.4	·	10.0	·	3.0	·	39.9
경남	·	10.0	·	·	17.5	200.9	·	50.6	·	·	·	279.0
제주	·	·	·	·	·	·	5.0	·	·	·	·	5.0
세종	·	·	·	15.0	·	·	·	2.0	·	·	·	17.0
해외	·	·	·	1.2	·	·	·	14.3	·	·	·	15.6
합계	210.5	614.3	41.0	193.3	370.0	685.4	5.0	1738.2	75.0	188.7	100.0	4221.3

자료: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7〉 2020~2024년 지역별 및 업종별 해양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한국벤처캐피털협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기업별 투자 현황

기업별 총 투자 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을 유치한 기업은 총 50억원을 유치하였다. 상위 11개 기업이 해양모태펀드 전체 투자금액의 약 50%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중 4개 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해양 기자재 제조 분야에 속한다.

〈표 3-28〉 2020~2024년 투자 유치 상위 기업별 투자 유치 현황

기업 ID	총 투자 유치 금액 (억원)	누적 투자액 (억원)	누적 투자액 (%)	중분류
1	50.0	50.0	8.2	해운업
2	41.0	91.0	14.8	선박 건조 · 수리
3	35.0	126.0	20.5	선박 · 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

기업 ID	총 투자 유치 금액 (억원)	누적 투자액 (억원)	누적 투자액 (%)	중분류
4	33.9	160.0	26.1	해양 기자재 제조
5	25.0	185.0	30.1	해양 전문 · 과학기술 서비스
6	21.0	206.0	33.6	해양 기자재 제조
7	20.0	226.0	36.8	해양 기자재 제조
8	20.0	246.0	40.1	해양 기자재 제조
9	20.0	266.0	43.4	해양 기자재 제조
10	20.0	286.0	46.6	해양 기자재 제조
11	20.0	306.0	49.9	해양 기자재 제조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6) 해양 신산업 분야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1) 해양 신산업 분야별 투자 현황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을 해양 신산업 분야[55]로 재분류하여 살펴보면,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전통산업 혁신 분야가 31.6%(194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친환경 · 첨단선박(30.1%, 184.5억원), 기타(22.7%, 139억원) 순으로 높았다. 전통산업 혁신 분야에는 대표적으로 해운 · 항만 등의 전통산업에 AI, I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기업 등이 해당되며, 친환경 · 첨단선박 분야는 전기선박이나 황산화물 저감 장치, 수중로봇 개발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었다.[56]

기업 수로는 친환경 · 첨단선박, 전통산업 혁신, 기타 순으로 많았으며, 기업당 투자 유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기타 분야가 17.4억원으로 가장

55)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해양수산부, 2022.12.27.)에 따라 ① 친환경 · 첨단선박, ② 해양레저관광, ③ 해양바이오, ④ 해양에너지 · 자원 분야로 구분하고,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1.30.)에 따라 ⑤ 전통산업 혁신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여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⑥ 기타로 분류함

56) '기타'에는 해양기자재 제조 또는 선박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 관련 기업들이 주로 포함되었으며,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따라 '해양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기업들 중 해양레저관광 관련 기업들(해양관광 플랫폼 개발 · 운영 기업 등)은 신산업 분류 기준으로는 '해양레저관광'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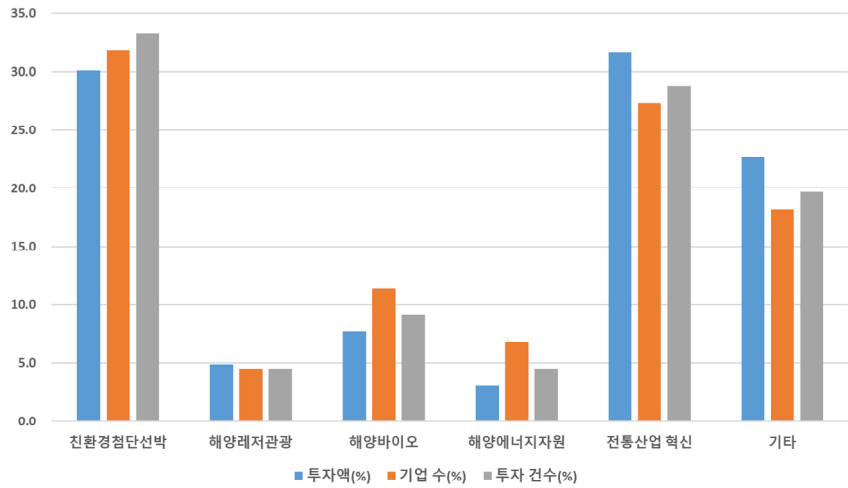
많고, 전통산업 혁신(16.2억원), 해양레저관광(15억원), 친환경 · 첨단선박(13.2억원) 순으로 많았다.

〈표 3-29〉 2020~2024년 해양신산업 분야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구분	투자액 (억원)	투자액 (%)	기업 수 (개)	기업 수 (%)	기업당 투자액 (억원)
친환경 · 첨단선박	184.5	30.1	14	31.8	13.2
해양레저관광	30.0	4.9	2	4.5	15.0
해양바이오	47.0	7.7	5	11.4	9.4
해양에너지 · 자원	19.0	3.1	3	6.8	6.3
전통산업 혁신	194.0	31.6	12	27.3	16.2
기타	139.0	22.7	8	18.2	17.4
합계	613.5	100.0	44	100.0	13.9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8〉 2020~2024년 해양신산업 분야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지역별 및 해양 신산업 분야별 투자 현황

해양 신산업 분야별 투자현황을 지역별로 재분류하면,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된 서울 지역에는 전통산업 혁신, 친환경 · 첨단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및 해양에너지 · 자원 등 가장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환경 · 첨단선박 관련 기업이 부산, 울산, 전남 등 남해안권을 비롯하여 충남, 경북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기타로 분류된 기업들(주로 해양 기자재 또는 선박 · 해양 플랜트 부분품 제조 관련 기업들)은 부산, 대전, 경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표 3-30〉 2020~2024년 지역별 해양신산업 분야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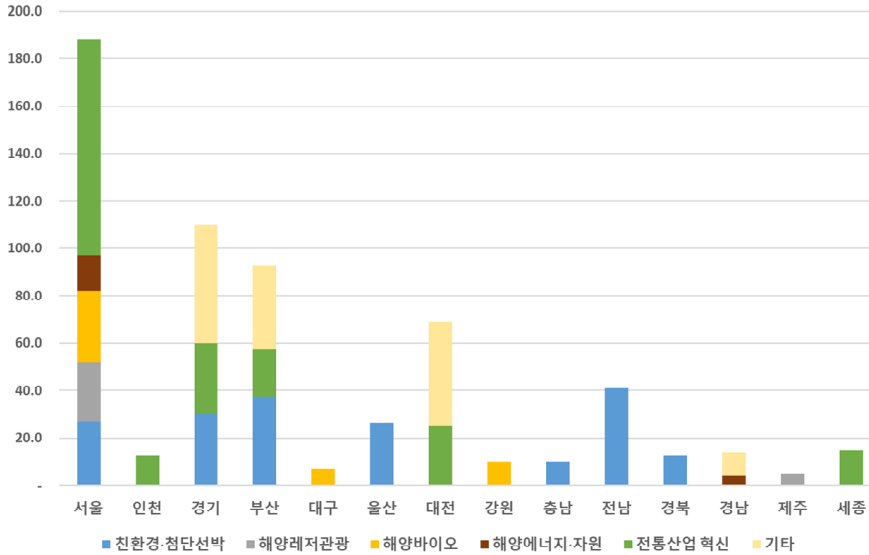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친환경 · 첨단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 자원	전통산업 혁신	기타	합계
서울	27.0	25.0	30.0	15.0	91.0	·	188.0
인천	·	·	·	·	13.0	·	13.0
경기	30.0	·	·	·	30.0	50.0	110.0
부산	37.5	·	·	·	20.0	35.0	92.5
대구	·	·	7.0	·	·	·	7.0
울산	26.0	·	·	·	·	·	26.0
대전	·	·	·	·	25.0	43.9	68.9
강원	·	·	10.0	·	·	·	10.0
충남	10.0	·	·	·	·	·	10.0
전남	41.0	·	·	·	·	·	41.0
경북	13.0	·	·	·	·	·	13.0
경남	·	·	·	4.0	·	10.0	14.0
제주	·	5.0	·	·	·	·	5.0
세종	·	·	·	·	15.0	·	15.0
합계	184.5	30.0	47.0	19.0	194.0	139.0	613.5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9〉 2020~2024년 지역별 해양신산업 분야별 해양모태펀드 투자금액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04
해양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제1절 해양모태펀드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

1. 해양모태펀드 운용상의 주요 현안

지금까지 한국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현황, 해양모태펀드 운용 현황, 해양산업의 범위,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산업의 여건과 해양분야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해양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과 투자 수요를 해양모태펀드가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역할에 비해 현재 해양모태펀드의 규모는 타 분야 펀드들에 비해 부족하다. 더욱이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에 대한 정부 출자금 조성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2025년 이후 추가적인 출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해양모태펀드 신설 이후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였는데, 신규 출자가 종료된 이후 이러한 바람직한 경향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한국모태펀드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

출자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민간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적인 투자 불균형과 공백이 해양모태펀드 투자 활성화와 해양산업 육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해양분야 기업 중 다수가 부산 등 남해권을 중심으로 지방 연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해양모태펀드 자펀드 등의 투자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분야의 투자 현황을 보면, 한국모태펀드 전체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처럼 수도권 편중 현상이 해양계정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해양기업의 80% 가까이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양모태펀드 투자 비중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도권 중심의 투자는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의 소재지와 관심 영역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세 번째 현안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벤처캐피탈 등 주요 투자자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들의 해양분야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투자자들이 주로 IT, BT 등 첨단산업 분야에 익숙하고, 해양산업 분야는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실정이다. 투자자들의 지리적 위치는 다수가 지역에 위치한 해양분야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해양모태펀드가 지방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양을 잘 알고 해양분야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대상 기업을 업력으로 구분했을 때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다른 펀드들에 비해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한국모태펀드 전체로 볼 때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최근들어 부족한 것으로 보임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해양계정의 경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들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상기할 때 해양모태펀드의 초기기업 대상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해양모태펀드의 투자현황을 보면 산업분야별 편중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로 보면 해양기자재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해양레저, 해양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양신산업 분야를 기준으로 볼 때는 친환경·첨단선박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 해양신산업 5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건통산업 혁신 분야나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간 투자 편중 현상은 각각의 분류체계가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향후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2.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개선 방향

이러한 현안 및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해양모태펀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양분야 정책펀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선 한국모태펀드 내 신규 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부출자를 확대해야 하며 추후 기존 해양계정의 확대,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국모태펀드 외 새로운 펀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해양모태펀드 계정은 수도권 기업들보다 지역에 소재한 해양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안지역 소재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 계정을 신설하거나,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해양분야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고 해양분야에 우호적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양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가 늘어나고, 연안도시 중심으로 투자사들이 점차적으로 분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네 번째로, 초기기업이나 특정 산업분야 등 기존 투자나 지원의 불균형이나 공백이 있는 부분을 해양모태펀드 투자가 채워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적 불균형, 기업 업력 상의 차별, 산업분야나 기업의 규모 등에 따른 지원의 부족 등을 해양모태펀드를 활용해서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해양분야 산업, 기업, 투자 등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공유·분석·활용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및 인적자원을 투자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 중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 출자가 종료된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것은 신규 모태펀드 계정 설립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모태펀드 신규 계정(안)을 제안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해양모태펀드 계정 신설 추진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수부는 2023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후에는 투자금이 회수됨에 따라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정된 투자금 회수는 2027년부터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회수되는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해양모태펀드 설립 이후 점차 확대되어온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 경향이 역전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고,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한동안 지속적인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 기존 해양모태펀드 계정에 대한 추가 출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해양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신규 모태펀드 계정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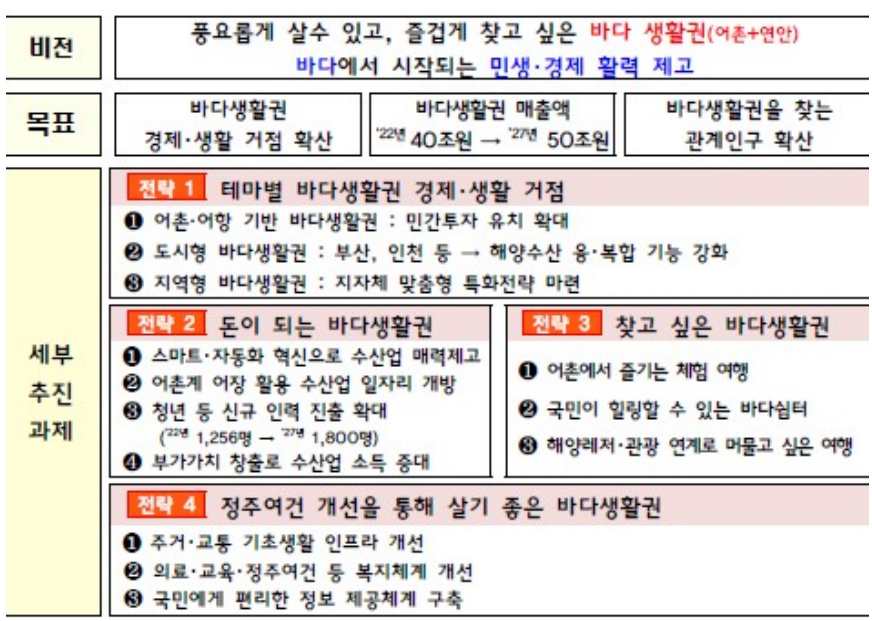
해양분야의 한국모태펀드 신규 계정은 그 중요성에 비해 기존 계정을 통해 잘 지원받지 못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살펴본 해양산업 현황과 해양모태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지방 소재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으로 그에 해당한다. 이 절에서는 먼저 연안지역에 대한 투자가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연안지역 해양기업 또는 연안경제에 대한 한국모태펀드 신규 계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연안지역 투자 관련 정부 정책 검토

1) 「어촌 · 연안 활력 제고방안」

가장 최근 해양수산 분야에서 수립된 연안지역 관련 정책으로 「어촌 · 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들 수 있다. 해수부는 2024년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촌 · 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특징은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의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바다생활권은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 · 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을 의미" 한다.[57]

〈그림 4-1〉「어촌 · 연안 활력 제고방안」 개요



자료: 해수부 보도자료(2024.5.13.) (검색일: 2024.10.25.)

57) 해수부 보도자료(2024.5.13.) (검색일: 2024.10.25.)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바다생활권을 경제활동의 거점으로 확립하고, 바다생활권 내 기업 등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어촌과 연안의 재건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는 내용, 해양도시의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 지역산업의 스마트·자동화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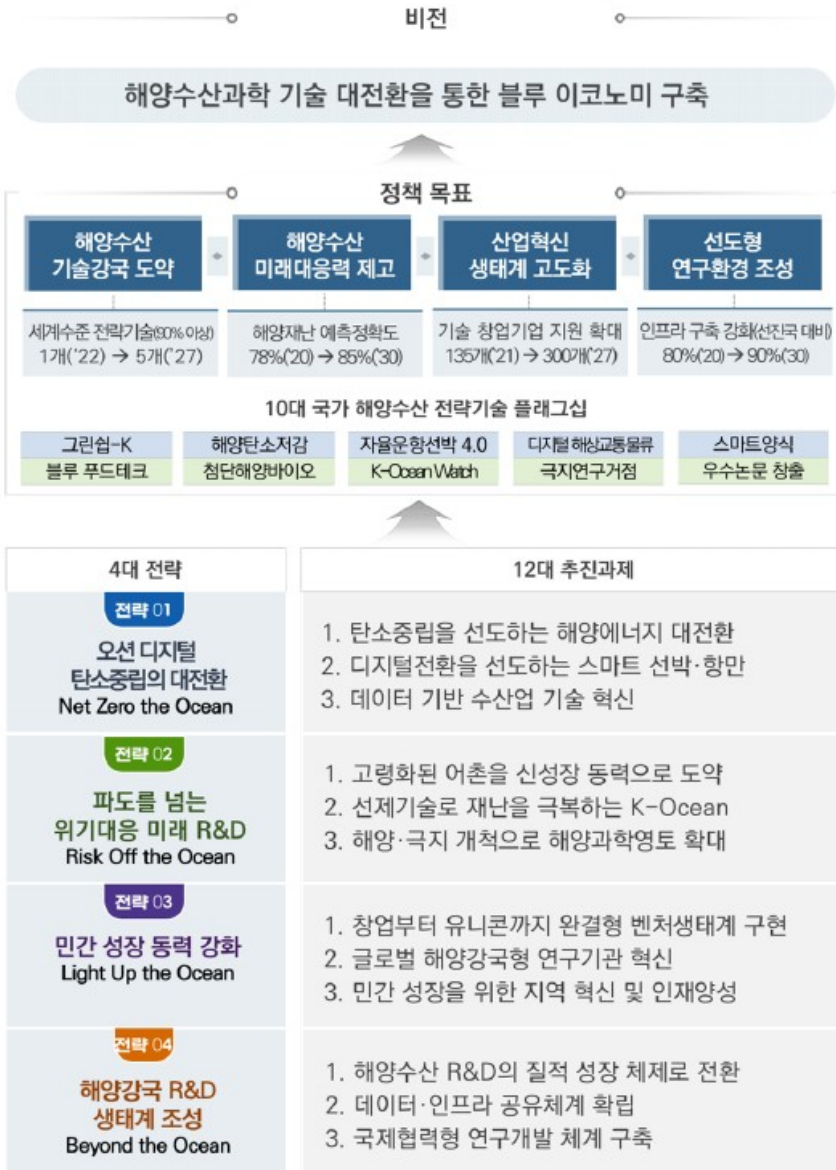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연안 지역의 기업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연안지역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모태펀드 계정 신설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이행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며, 해수부의 지역정책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은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해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수립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23~'27)」은 해양산업 정책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 기술강국 도약', '해양수산 미래대응력 제고', '산업혁신 생태계 고도화', '선도형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2〉「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개요



자료: 해수부 보도자료(2023.2.22.) (검색일: 2024.10.25.)

‘산업혁신 생태계 고도화’ 목표에 따라 기술 창업기업 지원을 2021년 135개에서 2027년 3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4대 전략 중 3번째 전략으로 ‘민간 성장 동력 강화’를 제시했고 여기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민간 성장을 위한 지역 혁신 및 인재양성을 전략3에 따른 세 번째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혁신과 기술개발 역량 제고, 기업 성장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은 지역 기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신설 방안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3)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2022년 12월 27일에 수립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은 기술혁신 기반의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정부 정책이다. 이 전략계획은 ‘해양수산 신산업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30조원 달성’과 ‘해양수산 유망기업 2,000개 육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 해양기업 투자 펀드와 특히 긴밀하게 관련된 내용은 3번째 전략인 ‘기업 성장기반 확충’에 따른 2번째 추진과제 ‘권역별 신산업 특성화 육성’이다.

〈그림 4-3〉「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개요

비 전

해양수산 신산업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실현

목 표

-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30조원 달성 ('21, 14.7조원 → '27, 30조원)
- 해양수산 유망기업 2,000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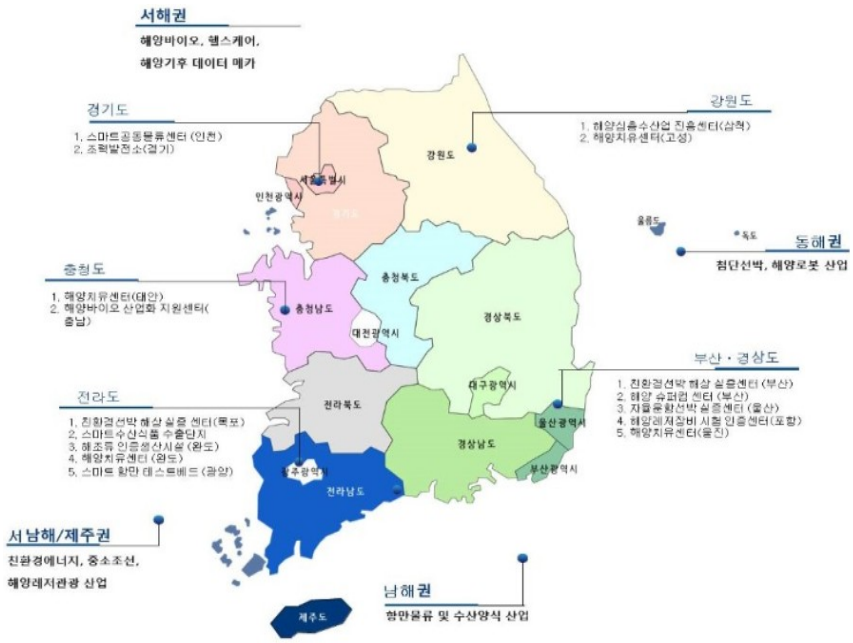
- 전략적 집중 투자 3조원 ('23~'27)
- 4개 권역별 신산업 특화 지원 거점 조성
- 연구시설 · 장비 2천종 공동활용

4대 전략	10개 추진과제
1. 선도기술 확보	1 혁신기술 개발 지원 2 핵심기술 보호 3 기술표준 선점 지원
2. 민간 주도의 창업동력 강화	1 신산업 분야 창업 확대 2 자금 지원 확대
3. 기업 성장기반 확충	1 초기 시장 창출 및 판로개척 지원 2 권역별 신산업 특성화 육성
4. 지원체계 고도화	1 분야별 규제 혁신 2 융합인재 양성 3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자료: 해양수산부(2022), p.10.

권역별 신산업 특성화 육성 방안은 전국 연안을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 ‘서남해·제주권’의 4대 거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지역 특성에 따라 핵심산업을 지정하고 있다. 깊은 수심과 낮은 수온을 특징으로 하는 동해권은 포항, 울산 등 첨단도시를 대표도시로 하여 ‘첨단 선박장비’, ‘첨단 해양로봇’ 분야를 핵심산업으로 한다. 넓은 갯벌과 풍부한 해양생물을 특징으로 하는 서해권은 서천, 인천, 경기 등을 대표도시로 하여 ‘해양바이오’와 ‘데이터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한다. 무역항로 요충지에 위치하며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남해권은 부산, 여수 등 항만·수산도시를 대표도시로 하며 ‘스마트 항만물류’, ‘수산양식식품’을 핵심산업으로 한다. 다도해와 빠른 조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서남해·제주권은 목포, 제주 등 관관도시를 대표도시로 하며 ‘중소선박·에너지’ 및 ‘해양레저관광’을 핵심산업으로 한다.

〈그림 4-4〉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의 권역별 특성화



자료: 해양수산부(2022), p.19.

이처럼 권역별로 필요시 해수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핵심산업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물론 권역별로 핵심산업을 지정했다는 것이 특정 산업은 그 지역에서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자원과 인프라를 집중·연계하고, 산업 분야별 거점을 조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해수부가 해양산업 거점을 바다에 인접한 연안지역에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은 연안지역의 산업기반과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모태펀드 계정 구상과 매우 잘 부합한다고 하겠다.

2. 한국모태펀드 신규 계정 제안: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

1)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 제안 개요

주요 국가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안지역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연안지역에 소재한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을 투자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주요 연안 지방에 민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을 투자의 지리적 대상으로 명시하는 신규 모태펀드 계정설립이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소재 해양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소멸, 어촌소멸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모태펀드 신규 해양계정의 명칭은 최근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개념을 적용하여 가칭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로 제안하고자 한다. 펀드의 관리·운용은 한국모태펀드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하게 된다. 기존 수도권 편중 투자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시 · 군 · 구에 소재한 해양분야 중소 ·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연안지역이 배제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지역들은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투자사들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표 4-1〉 한국모태펀드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 계정 신설(안) 개요

구분	내용
계정명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
운용기관	한국벤처투자(주)
출자기간	2026년~2030년(5개년)
정부출자 규모	1천억 원(매년 200억 원 이내)
주목적분야 투자대상	지방 시 · 군 · 구 소재 해양분야 중소 · 벤처기업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제외)

자료: 저자 작성

기존 해양계정을 대체하여 해양분야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의미에서 출자 기간과 출자 규모는 기존 해양계정과 동일하게 5년(2026~2030년), 총 1,000억 원(매년 200억 원 이내)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출자금 규모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부의 펀드 출자가 민간 투자를 구축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펀드(연간 200억 원 출자), 국토부의 도시재생 모태펀드(주택도시기금에서 연간 약 200억 원 출자) 및 글로벌 플랜트 · 건설 · 스마트시티 펀드(정부예산 200억 원 출자), 교육부의 대학창업펀드(정부예산 120억 원 출자),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주택도시기금 200억 원 출자) 등 한국벤처투자에서 위탁운용 중인 타 부처의 정책펀드 사례들을 볼 때도 적절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된다.[58]

58)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 9. 19.)

2) 주요 관련 펀드 현황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중기부, 지자체 등에 의해 제기되어 왔고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펀드들이 조성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중기부가 출자하는 한국모태펀드 지방계정이다. 2024년에 조성된 인구활력 분야 자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230억 원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소재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59]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초격차 분야의 경우 주목적 투자대상이 2가지 조건, 즉 ①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② 정부가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10대 초격차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수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로 이 중 '해양'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기업 중에는 2024년 현재 해양분야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4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초격차 분야의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4,928억 원이다.[60]

59)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 9. 19.)
60)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 9. 19.)

〈표 4-2〉 한국모태펀드 지방계정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2)	금정구 중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1)	동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광주(1)	동구
경기(2)	가평군 연천군	대전(3)	대덕구 동구 중구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2)	동두천시 포천시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강원(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익산시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경북(2)	경주시 김천시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남(2)	사천시 통영시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 9. 19.)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2024년 수도권 리그와 글로벌 리그에 각각 500억 원과 10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부산지역 9대 전략산업 기업’과 ‘부산 지역 5대 미래신산업 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 조건에 포함되었다. 9대 전략산업 기업은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융합부품소재, 라이프스타일, 해양, 금융, 문화관광으로 ‘해양’ 분야가 포함

되며, 5대 미래신산업은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항공, 디지털금융, 디지털헬스케어이다.[61]

한편, 대구 · 제주 · 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경우 2024년 출자 규모가 총 298억 원이며, 주목적 투자대상은 다음의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 · 벤처기업이다. 조건은 ① 대구 · 제주 · 광주 지역 소재 기업, ② 물산업 기업, ③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④ 규제샌드박스 승인 받은 기업 중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이다. 이 중 '물산업 기업'에는 일부 해양분야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62]

이상 한국벤처투자에서 위탁 운용하고 있는 2024년 출자사업 중 지역기업 투자와 관련이 있는 정책펀드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초격차' 분야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와 같이 '해양' 분야가 주목적 투자 대상의 조건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해양분야 기업이 이들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모든 첨단 분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해양기업이 선정되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지역 기업 대상 정책펀드들이 해양산업 육성에 기여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61)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 9. 19.)
62)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검색일: 2024. 9. 19.)

제3절 해양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1.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농금원은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을 운영하여 기업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ASSIST는 농금원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있어 모태펀드 관련 목적으로 접속한 이용자가 손쉽게 기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해양 분야에서는 KIMST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O-Startup)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는 ASSIST의 경우와 달리 모태펀드 운용사 홈페이지와 이원화된 체계이다. 즉, 해양모태펀드와 관련된 공지사항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데 반해 해양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는 KIMST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국모태펀드는 다수의 부처 및 기관이 출자하는 펀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해수부라는 특정 부처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양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O-Startup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KIMST는 O-Startup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기업이 직접 자신들의 홍보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사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O-Startup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것도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해양모태펀드 성과분석

2019년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이 신설된지 만 5년이 경과했다. 그 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운용 방식의 적절성과 효과성, 해양산업과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들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할 만한 시기이다. 이러한 성과분석은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정책펀드와 금융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벤처투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모태펀드 출자자인 해양수산부는 펀드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받고 있지만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일상적인 업무로서 받아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에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해양분야 전문 투자자 양성

해양분야 산업 및 기업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아져야 투자 생태계가 풍성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어떻게 투자자들을 해양분야에 가까이 이끌 수 있을 것인가인데, 이를 위해 해수부와 KIMST가 투자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정보제공, 홍보 등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실제 해양모태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 결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직접 투자하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는 경험이야말로 무엇보다 효과적인 유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펀드 운용사, 투자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콜옵션 제공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앞서 제안한 연안경제계정이 신설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주요 연안 거점에 투자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계정의 신설은 해양분야에 정통한 투자자 양성과 지역기반의 해양산업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4. 자펀드 분야 세분화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항상 '해양신산업' 분야로만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반면 다른 계정이나 수산 모태펀드 등 여타 정책펀드들은 다양한 분야로 자펀드를 구성하고 있다. 가장 처음 모태펀드에 참여하였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중기부의 경우 아예 여러 가지 다른 계정들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해양모태펀드도 자펀드의 분야를 세분화함으로써 정부 출자금의 규모 확대와 다양한 해양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 또는 분리가 필요한 자펀드 분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 지방 소재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고려해볼 수 있다. 해양분야 기업의 상당수가 남해권 등 지방에 위치한 현실에서 해양모태펀드를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만약 지방 기업 지원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면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기타 투자자 등이 지역 투자생태계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해양분야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기업 투자에 있어 지방 소재 기업들이 받는 불이익을 조정해주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 재창업 기업

기존의 해양분야 창업지원사업에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별개의 지원사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 수요를 해양모태펀드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재창업하는 기업가의 경우 기업 경영의 실무적 업무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저런 컨설팅이나 세부적인 지원보다 펀드를 통한 투자가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재창업했을 때의 성공 가능성이 첫 창업한 기업보다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재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분야를 별도로 마련해주면 펀드 수익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분야 엑셀러레이터

해양모태펀드는 업력으로 구분할 때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초기 창업기업 양성이 효과가 매우 좋은 정책적 지원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해양모태펀드 신규 분야로 만들 이유가 충분할 것이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한 실무 교육이나 컨설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 엑셀러레이터들은 유망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도 고려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중기부의 경우 엑셀러레이팅과는 다르지만 엔젤계정을 별도의 모태펀드 계정으로 운용하여 엔젤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규모가 작은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도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사업이나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해양모태펀드의 지원으로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해양분야 중소·

벤처기업들이 스케일업을 이루고 해외 진출에도 성공하여 글로벌 기업이 다수 탄생하는데 신규 자펀드 분야 신설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신규 정책펀드 신설

한국벤처투자가 관리 ·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는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모태펀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최근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K-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의 신설은 해수부가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국내 대형 콘텐츠 제작, 대형 제작사 육성, 콘텐츠 IP 보유 ·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신규 정책펀드 조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도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신규 정책펀드 조성이 불가능한 것만을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해양 방사능 문제, 대규모 해양사고, 동해 석유 · 가스전 개발이나 남해 7광구 등 해양분야에서 국가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에 국가적 이슈가 발생할 때 필요에 따라 정책펀드 신설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들은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의 '해양신산업' 분야와 중복이 크지는 않을 것이며, 중소 · 벤처기업과 더불어 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정리하고 국익 차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 새로운 정책펀드 조성도 가능할 것이다. 콘텐츠 분야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에 비중 있는 국가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05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해양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해양분야의 민간 투자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자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투자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면 민간 투자기관 및 투자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시장을 구축하지 않으면서 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자의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재간접펀드 형식의 모태펀드이다.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조성한 해양모태펀드, 즉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의 출자 및 운용 현황 등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고, 해양분야 기업 현황과 해수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도 검토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양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정부 출자가 종료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 한국모태펀드 계정을 신설하기 위한 신규계정(안)을 제시하였다. 가칭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는 현행 체계에서 비수도권 소재 지방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못한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다. 시급하게 계정 신설을 통해서 투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해양분야 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하였다.

해양모태펀드가 출범한지 5년이 되었고 당초 계획한 출자금 규모가 이미 달성된 상황에서 종합적인 정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지만 자료의 제한, 연구비 규모, 신규 계정 제안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충분히 깊고 폭넓은 연구가 되기는 어려웠다. 향후 해양모태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개선된 정책이 제시되고 해양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절 정책제언

2024년 170억 원 출자를 끝으로 해양모태펀드에 대한 정부 출자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분야 전용 정책펀드가 부재했던 5년 전의 상황에 비해 모태펀드로 인해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해양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모두 충족되지는 못했고, 모태펀드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하던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가 향후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해수부는 추가적인 모태펀드 출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은 한국모태펀드 신규계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칭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2026년부터는 정부 출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신규계정(안)과 더불어 기존계정의 연장과 추가 출자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해양계정의 주목적분야인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양신산업은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며 새로운 신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인프라나 기업규모, 역량 등이 기성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2안으로 기존 해양계정 연장(안)도 함께 검토하기를 권고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양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건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련 자료 및 정보 DB의 구축과 제공, 해양분야의 전문 투자자 양성, 자펀드 분야의 세분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관계부처 합동(2023),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강원(2019), 국내 모태펀드의 성과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6), pp. 1-9.

강태훈(2023), 기술금융펀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민간주도형 모태펀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석사학위,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김상욱(2014a), 콘텐츠산업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콘텐츠 연구, 7, pp. 5-25.

김상욱(2014b),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개선 방안 연구, 문화경제연구, 17(3), pp. 105-138.

김준일 · 송원근(2014), 한국 모태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및 매출효과 분석, 지역산업연구, 37(4), pp. 305-331.

남인우(2021), 민간 파트너에 의한 코프로덕션 성과 평가에 대한 정성적 연구 – 한국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25(2), pp. 163-189.

남재우(2022), 국내 정책펀드 현황 및 제도 개선,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03.

미디어 · 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2024), 미디어 · 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박광서 외(2018),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93.

박정서 · 윤병섭(2012), 한국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투자 성과 분석, 중소기업연구, 34(2), pp. 23-46.

송원근, 김준일, 김혜영(2014),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실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양영석(2015), 창업초기 투자단계 'Series A Crunch'의 원인분석과 마이크로 VC 펀드의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 벤처창업연구, 10(4), pp. 39-47.

여영준 외(2023), 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국회미래연구원, 기획연구보고서 23-02호.

이종필 · 황영순(2017), 기술창업지원펀드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현안연구 2017-03-732.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0),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길라잡이.

좌미라 · 한기원(2024),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2024-02.

한국벤처투자(2022), 벤처펀드 가이던스.

한기원 외(2021),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시연구 2021-01.

해양수산부(2022),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해양수산부(2023a),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

해양수산부(2023b),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21~2030).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24), 해양수산 창업 · 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 자료집.

황기형(2012), 해양부문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시연구 2012-09.

국외 문헌

Afful-Dadzie, Eric & Anthony Afful-Dadzie (2016), A Decision Making Model for Selecting Start-up Businesses in a Government Venture Capital Scheme, Management Decision, 54(3), pp. 714-734.

Alperovych, Yan, Alexander Peter Groh, & Anita Quas (2016), When Can Government Venture Capital Funds Bridge the Equity Gap,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15, pp. 1-35.

Alperovych, Yan, Anita Quas, & Thomas Standaert (2018), Direct and Indirect Government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n Europe, Economic Bulletin, 38(2), pp. 1219-1230.

Brander, James A., Qianquian Du, & Thomas Hellmann (2014), The Effects of Government-Sponsored Venture Capital: International Evidence, Review of Finance, 19(2), pp. 571-618.

Brander, James A., Edward J. Egan, & Thomas F. Hellmann (2010), Government Sponsored versus Private Venture Capital: Canadian Evidenc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75-320.

Callagher, Lisa Jane, Peter Smith, & Saskia Ruscoe (2015), Government Roles in Venture Capital Development: A Review of Current Literatur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Public Policy, 4(3), pp. 367-391.

Cumming, Douglas & Sofia Johan (2019), Government Venture Capital Research: Fake Science and Bad Public Policy, Venture Capital, 2(1), pp. 121-131.

Dahaj, Arash Soleimani & Brian Paul Cozzarin (2019), Government Venture Capital and Cross-border Investment, Global Finance Journal, 41, pp. 113-127.

Jáki, Erika & Endre Mihály Molnár (2021), Venture Capital and Government Invovement from a Qualitativ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Perspective, Acta Oeconomica, 71(4), pp. 645-663.

Luukkonen, Terttu, Matthias Deschryvere, & Fabio Bertoni (2013), The Value Added by Government Venture Capital Funds Compared with Independent Venture Capital Funds, Technovation, 33 pp. 154-162.

Murray, Gordon (2021), Ten Meditations on Government Venture Capital, Venture Capital, 23(3), pp. 205-227.

Owen, Robyn, David North, & Ciaran Mac an Bhaird (2019), The Role of Government Venture Capital Funds: Recent Lessons from the U.K. Experience, Strategic Chance, 28(1), pp. 69-82.

Sohn, Dong-Won, Hyun Jeong Kim, & Wonchang Hur (2012), Effect of Venture Capital and Government Support on the Performance of Venture Firms in Korea,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0(2), pp. 309-322.

인터넷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 3. 13.),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로 K-콘텐츠 · 미디어, 새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검색일: 2024.9.12.)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홈페이지, https://assist.apfs.kr/usr/main/main.do(검색일: 2024. 9. 1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https://www.apfs.kr/front/user/main.do(검색일: 2024. 9. 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2023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계획(수산투자 계정) 공고(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고 제2023-3호), 2023. 2. 20., https://www.apfs.kr/front/board/boardContentsListPage.do?boardId=10026&menuId=41#none(검색일: 2024. 9. 1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2024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계획(수산투자 계정) 공고(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고 제2024-7호), 2024. 2. 28., https://www.apfs.kr/front/board/boardContentsListPage.do?boardId=10026&menuId=41#none(검색일: 2024. 9. 1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 3. 13.), 신규 '케이-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 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List.jsp(검색일: 2024.9.1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 4. 24.), '케이-콘텐츠 · 미디어 전략펀드' 모펀드 위탁운용사 최종 선정.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List.jsp(검색일: 2024.9.13.)

아시아경제(2021.12.7.), 해수부, 전북 창투센터 1곳 추가개설..내년 7곳 운영, https://v.daum.net/v/20211207151640819(검색일: 2024.9.1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jif.re.kr/index.do?menuUUID=53473d308499a5b10187740b91d5005f(검색일: 2024.9.15.)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0.9.19.), 스타트업코리아펀드, 20개 펀드, 8,400억원 규모 조성 착수,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53367&parentSeq=1053367(검색일: 2024. 10. 25.)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3.8.30.),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4049&parentSeq=1044049(검색일: 2024. 10. 25.)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selectIntroduce.do?gubun=2&bbsId=sea_ug#(검색일: 2024.4.27.)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https://www.kvic.or.kr/(검색일: 2024.4.2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4. 9. 19.), 해양수산부, '찾아가는 기업 설명회' 개최: 지역별 기업설명회를 통해 수산모태펀드 투자기업 발굴.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List.do?menuSeq=971&bbsSeq=10&listUpdtDt=2024-12-24++10%3A00(검색일: 2024.9.1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7. 3. 29.), 아이디어로 만든 참신한 제품 보러 오세요 – 해수부, 31일(금) 부산서 '2016 수산산업 창업 · 투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List.do?menuSeq=971&bbsSeq=10&listUpdtDt=2024-12-24++10%3A00(검색일: 2024.9.1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 1. 30.), 해양모태펀드 닻 올렸다: 해수부, '19년에는 286억 원 규모로 펀드 조성 추진,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List.do?menuSeq=971&bbsSeq=10&listUpdtDt=2024-12-24++10%3A00(검색일: 2024.9.1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0. 1. 2.), 2020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 추가 지정 –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운영 내실화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List.do?menuSeq=971&bbsSeq=10&listUpdtDt=2024-12-24++10%3A00(검색일: 2024.9.1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4.20.), “올해도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 - 2021년 제1차「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개최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List.do?menuSeq=971&bbsSeq=10&listUpdtDt=2024-12-24++10%3A00(검색일: 2024.9.1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12.16.), 해양수산,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네거티브로,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44099&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currentPageNo=5&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D%83%84%EC%86%8C%EC%A4%91%EB%A6%BD(검색일: 2024.10.25.)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2.22.), 미래 해양수산 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에 5조원 투자,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49291&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curren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A%B3%BC%ED%95%99%EA%B8%B0%EC%88%A0 (검색일: 2024.10.25.)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3.21.),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0306&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curren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D%83%84%EC%86%8C (검색일: 2024.10.25.)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6.6.), ‘해양수산 투자기관협의회’ 개최하여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745#pressRelease (검색일: 2024.10.26.)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1. 30.), “올해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 정부 출자규모 30% 늘려”,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List.do?menuSeq=971&bbsSeq=10&listUpdtDt=2024-12-24++10%3A00(검색일: 2024.9.1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5.13.),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 · 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971&bbsSeq=10&docSeq=56954 (검색일: 2024.10.25.)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https://www.kimst.re.kr/startup/ko/index.do (검색일: 2024.5.10.)

해양수산통계시스템, 2021년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검색일: 2024.9.1.)

DIVA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 http://diva.kvca.or.kr/div/cmn/DivDisclsMainInq (검색일: 2024.11.01.)

법률 자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04호, 2023.6.20., 타법개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398호, 2024.3.19., 일부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90호, 2024.1.9., 타법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20364호, 2024.2.27., 일부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9145호, 2022.12.27., 일부개정)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4년

01	섬 · 바다 · 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최일선
02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좌미라
03	시민친화적 바닷가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정지호
04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석문
05	특별관리해역 관리제도 재편 방안 연구	최수빈
06	해양관할구역 과세권한의 체계적 배분방안 연구	이혜영
07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서연
08	수산물 무역(수출입) 단기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기욱
09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10	어촌다움에 기반한 어촌공간관리 방안 연구	이승혜
11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	김한나
12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허성례
1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세원
14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전략 연구	김근섭
15	항만 하역능력의 서비스 수준 개선 연구	이화섭
16	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근섭
17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혜리
18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나영환
1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강무홍
20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이성우

2023년

01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해상교통관제 대응방안 연구	박상원
02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규범의 해양수산분야 영향 분석 연구	임병호
0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이나영
04	연안재해 정보 활용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5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석우
06	마을어장 이용 · 관리 개선방안 연구	마창모
07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사회 · 생태복원 중심으로 -	최석문
08	주민행태기반 해양정책 수용성 제고 설계 방안 연구	이슬기
09	항만연관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김세원
10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조아현
11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방안 연구 - 항만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	서정용
12	어업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연구	고동훈
13	수산물의 디지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건
14	항만개발사업의 정책영향평가 연구	이수영
15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 예측과 국내 대응 전략 연구	이호춘
16	어선현대화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17	연안도시의 쇠퇴와 대응방안 연구	강창우
18	해양범죄 실태 진단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민영훈
19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김지윤
20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연구	허수진
21	지방분권시대의 수산업 · 어촌분야 대응전략 연구	이호림
22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김한나
2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망 최적화 방안 연구 : 한국-북미 물류공급망 중심	이성우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4년

0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03	해양안보 MDA 체계 협력적 운용 방안 연구	민영훈
0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한장협
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06	부산항 물동량 유치방안 연구	김은우
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채수란
08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 ·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아
09	내수면어업 허가 · 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순
10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심성현
11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황수진
12	연안 중소선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지원방안	류희영
13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김보경
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1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장원근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윤미경
17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신정훈
18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발전방안 연구	권보배
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2023년

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이정필
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일선
03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안승현
04	블루푸드테크 전문기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동림
05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요인 연구	이혜영
06	양식장 내 어류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오서연
07	해양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공급사슬 기반 조성 연구	이윤정
08	중소 · 중견 물류기업의 ESG경영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이재호
09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보경
10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 ·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정아
11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박수진
12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지원
13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방안 연구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4년

0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김엄지
02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박수진
03	해양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연구	최희정
04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 중심으로	조헌주
05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 방안 연구(한·태 무역을 중심으로)	한기욱
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혜진
07	탄소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철광석, 화학공업생산품, 기타광석, 잡화를 중심으로	이나영
11	접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2023년

01	해양수산업 조기경보지수 개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을 중심으로	권장한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II)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강무홍
0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기욱
04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Ⅱ) - 유류, 철재, 모래, 목재, 양곡을 중심으로	이화섭
05	대기행렬모형을 활용한 선박대기비용 절감 편익 산정 연구	조아현
06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세부항목별 효과산정 방법 연구	이종필
07	해양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최희정
08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방안 연구	황진회
09	해운 경기순환 분석 및 예측 연구	황수진
10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수입수산물 전략품목 관리 방안 연구	박혜진
11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방안 연구	이지원
12	선사공동행위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류희영

수시연구 2024-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2025년 1월 29일
발 행 2025년 1월 31일

발 행 인 김 종 덕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 · 인쇄 공감 Tel: 051-903-9909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Increase
Investment in the Marine Fund of Fund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93300
9 791168 662100
ISBN 979-11-6866-210-0 값 15,000원